

한국문화탐방 I

2018 발표자료집

(4월4일 ~ 4월6일)

제주도 서부, 동부, 시내권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한국문학탐방 I

발표 자료집

2018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1. 탐방단 구성-----	7p
2. 버스 좌석표-----	8p
3. 방 배정표-----	9p
4. 답사 일정표-----	10p
5. 답사 보고서-----	11p
6. 지도-----	13p
7. <1조> 제주민요-----	14p
8. <2조> 추사 김정희-----	23p
9. <3조> 제주도 민담-----	31p
10. <4조> 제주도 신화-----	38p
11. <5조> 현기영 《순이삼촌》-----	44p
12. 탐방지역 더 알아보기!-----	53p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제진행 : 학생회장 김태영 (010-6821-5031)
 발표사회 : 답사부장 구자현 (010-9282-9371)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 이해원 (010-5688-7097)
 자료집제작 : 편집부장 이정민 (010-6734-3977)
 재정 및 진행기록 : 조교 강윤아

조	조장	조 원
1	윤정섭	이단비 엄지호 김원목 이준규 김혜빈
2	박은선	김수동 전소민 변지현 추연식
3	김진경	신요섭 박상선 권연송 이정민
4	김주리	이해원 박정훈 이혁재
5	김지윤	김태영 민성원 하민아 민초이 함상희
6	객원	구자현 박상우 이소정 박은지 정현아 임무혁 김동균 손수민

조	주제
1	제주 민요
2	추사 김정희
3	제주도 민담
4	제주도 신화
5	현기영 <순이삼촌>

※주의사항※

- 답사지에서 발표 후 자유 관람이 진행됩니다.
- 자유 관람 시 안전을 위해 개인행동을 삼가고 조별로 행동합니다.
- 명찰은 반드시 착용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교수, 조교, 인솔담당 학생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

기사님
김명준 교수님
함상희 김진경
박은선 하민아
김수동 이준규
신서인 교수님
변지현 김주리
전소민 권연송
윤정섭 박상선
이단비 이정민
엄지호 김원목

계 단
김태영 구자현
강윤아 이해원
박슬기 교수님
김지윤 박정훈
추연식 이혁재
민성원 신요섭
이병기 교수님
김동균 (위생담당)
정현아 손수민
김혜빈 민초이

박상우	임무혁		이소정	박은지
-----	-----	---	-----	-----

한국문학탐방 방 배정표

<여자>

1번방(325)

강윤아 박은지 이소정

2번방(326)

정현아 이해원 이정민 손수민

3번방(643)

김지윤 김주리 전소민 김원목 김혜빈

4번방(648)

이단비 엄지호 하민아 김진경 민초이

5번방(650)

박은선 변지현 박정훈 함상희 권연송

<남자>

1번방(634)

김태영 박상우 구자현 임무혁 김동균

2번방(636)

박상선 민성원 이준규 추연식

3번방(638)

김수동 신요섭 이혁재 윤정섭

구분	1일차 4.04.(수)	2일차 4.05.(목)	3일차 4.06.(금)
~08시	04:50 학교 집합 05:00 학교 출발(2시간) 07:00 김포공항 도착 07:50 1차 출발(진에어) (1시간 10분)	07:45 조식 장소로 이동(5분) / 도보 07:50 식당 도착(30분)	07:45 조식 장소로 이동(5분) / 도보 07:50 식당 도착(30분)
09시	09:00 2차 출발(제주항공) (1시간 10분)	09:00 인원점검 및 출발(40분) 09:40 성읍민속마을 <3조>발표: 제주도 민담(60분)	09:0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09:30-10:30 제주4·3평화공원 <5조>발표: 현기영 <순이삼촌>(60분)
10시	10:10 제주 공항 도착 (짐 찾기, 인원파악 등)	10:40 인원점검 및 출발(20분)	10:30-10:50 인원점검 및 출발(20분) 10:50-11:40 제주국립박물관(40분)
11시	10:45 버스타승, 인원 점검 및 출발(15분) 11:00 식당 도착(40분)	11:00 혼인지 도착 <4조>발표: 제주도 신화(50분) 11:40-11:45 인원점검 및 출발(5분)	11:40-11:5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1:50-12:25 식당 도착(45분)
12시	11:40-12:20 인원점검 및 출발(40분)	11:45-12:25 식당 도착(40분) 12:25-12:50 유채꽃밭 인원점검 및 출발(25분) 12:50-12:55 도착	12:25-12:30 인원점검 및 이동(5분) / 도보 12:30-13:30 제주자연사박물관(50분) / 0.8
13시	12:20-14:00 한림공원(1시간40분) / 9. <1조>발표: 제주 민요 한림공원 내 재암민속마을	12:55-14:15 성산일출봉(2시간 20분) / 2.	13:30-13:45 삼성혈(15분) / 0.7 13:55-14:05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4시			14:05-14:40 용두암 도착(35분)
15시	14:05-14:35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이동) 14:35-15:35 제주평화박물관(50분) / 5.	14:15-14:50 인원점검 및 출발(35분) 14:50-15:50 만장굴 (1시간) / 2.	14:4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4:50 제주 공항 도착
16시	15:35-15:55 인원점검 및 출발(20분) 16:00-16:45 추사유배지(50분) / 0.5 <2조>발표: 김정희		
17시	16:45 인원점검 및 출발(5분) / 도보 16:50-17:50 식당 도착(60분)	15:50-16:2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16:20-16:50 해수욕장(30분) 16:50-17:50 식당도착(60분)	17:20 1차 출발(제주항공) 18:00 2차 출발(진에어) (1시간 10분)
18시	18:00-19:35 인원점검 및 출발(75분)	17:50 인원점검 및 이동(10분) / 도보 18:00 숙소 도착	18:30 김포공항 도착(제주항공) 19:10 김포공항 도착(진에어) ※ 도착 후 개별 해산 ※ 소감문은 추후 제출
19시	19:35-20:00 숙소 도착,입실(25분)		
20시	20:00-21:00 토의 및 소감문 제출(60분)	18:30-19:30 토의 및 소감문 제출	
21시 ~	21:00 개인정비 및 취침	19:30 개인정비 및 취침	
숙식	조식: 간편식(차량 내) / 5. 중식: 황금어장(064-748-8989) / 옥돔구이(또는 뽕배기)/ 10.(~13.) 석식: 보성식당(064-794-7782) 주물럭 / 10.	조식: 홍석이네(064-784-0919) 순두부찌개 / 6. 중식: 은미내식당(064-784-3491) 돌문어볶음 / 10. 석식: 황금 ㄱ팡(064-784-7177) 해물탕 / 17.5	조식: 홍석이네(064-784-0919) 김치찌개 / 6. 중식: 삼대국수회관(064-759-6644) 고기국수(고기추가) / 7.5(9.5)
	대명리조트 제주(스위트룸)	대명리조트 제주(스위트룸)	

<답사 보고서>(일일 제출용 - 조원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들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학번		이름	
답사지:					
경로(구체적 장소)	시간	관찰 내용		특기 사항	
【감상】(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하여)					
【발표 내용, 답사 일정 등에 관한 의견】					

<답사 보고서>(일일 제출용 - 조장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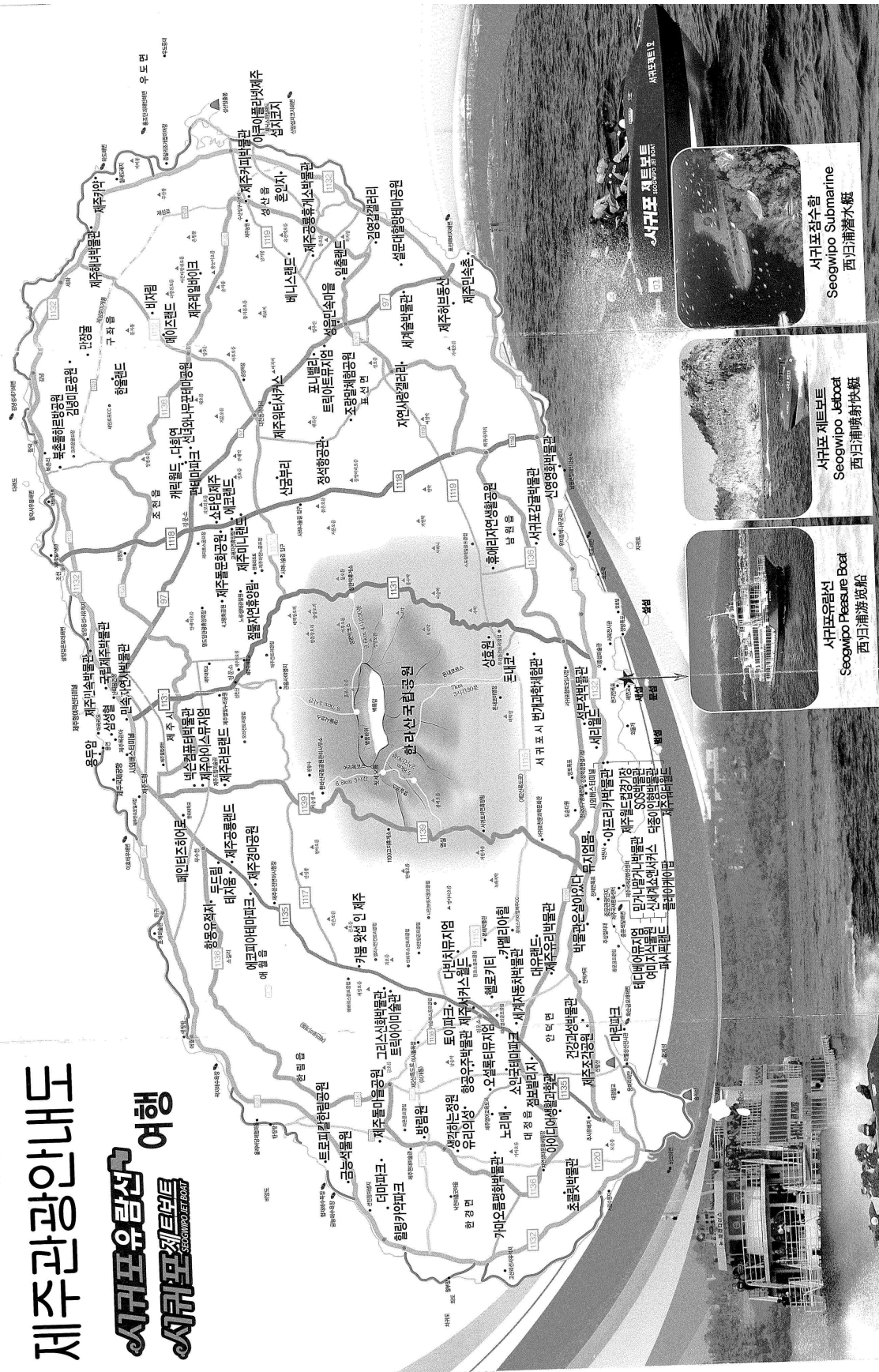
※ 조장은 조원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장용 답사지의 보안을 유지하여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이름	
금일 답사지 전체:			
조원 이름	발표수용태도	답사태도	전체적인 평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금일 답사에 대한 느낌】 (답사지, 인솔교수, 집행부, 음식, 숙소 등 건의 포함)			
【금일 최우수 조원 추천】			
피추천인 - 사유 -			

제주관광안내도

서귀포유람선 여행
Seogwipo Jet Boat



서귀포잠수함
Seogwipo Submarine
西归浦潜水艇



서귀포 제트보트
Seogwipo Jetboat
西归浦喷射快艇



서귀포유압선
Seogwipo Pressure Boat
西归浦游览船

1조 제주민요

기원과 전개

국어국문학과 20161065 이단비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 흔히 삼다도라고 불리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인 제주민요는 제주민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등의 노동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업 속에서 제주민요를 향유했지만 특히 여성들은 민요를 삶의 일부로 생활 문화로서 향유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의식, 유희의 진행에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더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성격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띤 민요인 의식요 중 무속의식요는례의 진행 중에서 신과 인간이 동참하여 신인합일의 경지로 화하는 효용이 있고 장례의식요는 행상과 흥을 하는 일, 달구 등 장례의례를 위한 기능을 반영했다. 또한 여성들에 의해 노래의 감흥을 표현한 가창유희요인 창민요는 특수 계층인 기생들에 의해 전해진 민요이다.

제주 민요로 지정된 4종류 민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그리고 맷돌노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중 맷돌노래만이 순수 제주 민요이다.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는 육지에서 들어온 유입 민요이다. 또한 제주도에선 일하면서 부르는 소리들이 많은 데 비하여 놀이판에서 놀며 부르는 소리는 드문 편이다. 부녀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장구의 대용으로 물 길러 다닐 때 쓰는 일종의 물독인 허벅을 두들기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 놓고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이때 향토적인 냄새가 나는 음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1930년 대표 민요 연구자인 김사엽은 제주도민요는 이 섬의 제반생활기구가 민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조선 민요의 보고라고 했다. 또한 섬색시의 고된 삶에서 우러난 제주도민요는 육지의 부녀자들의 민요보다 더 절절하여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 했다.

제주도는 구비문학의 보고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설화와 민요가 마을마다 전승되고 있어서다. 제주민요는 기능 보유자인 조율선이 작고하고 기능 후보자인 이선옥마저 작고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기능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기능 보유자를 ‘개인’이 아닌 ‘기능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하여 지정한다면 성읍민속마을 공동체가 ‘제주민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변성구, 「제주민요의 사실과 노래명 표기에 대한 연구」, 한국민요학, 2006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 2012

최혜경, 「제주민요 창자 중심의 보전 방안」, 한국민요학, 2013

박선애, 「한국 근대 민요론 연구3-김태준과 김사엽의 민요론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015

이성훈, 「제주도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와 성읍민속마을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 한국민요학, 2016

제주 민요의 종류

국어국문학과 20171065 윤정섭

제주 민요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민요의 정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요는 “서민들에 따라 형성·발전·향유되는 가락과 기능이 융화된 노래로서 서민생활 전반과 직결되는 가장 서민적인 구전문학”이다.¹⁾ 또한 민요를 종류 별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민요의 특성상 정확하게 분류하기 힘들다. 민요의 분석은 대체로 문학적, 음악적, 민속학적 세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그 측면에 따라 분류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²⁾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요가 확실한 분류 기준이 없는 것처럼 제주 민요도 확실하게 분류되는 방법이 현재 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일단 제주도 민요는 기능 위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왜냐하면 제주 민요는 노동요가 매우 일반적이고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민요를 분류할 때 노동요와 비노동요로 구분지어 분류할 수 있다.

일단 제주 노동요의 종류는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벌채요, 관망요 그리고 잡역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농업요에는 <따비질노래>, <밭 가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밭 밟는 노래>, <씨레질노래>, <밀레질 노래>, <보리거름 밟는 노래>, <밭매는 노래>, <타작노래>, <보리 훑는 노래>, <벼 훑는 노래> 그리고 <마소 모는 노래> 등등이 있다.

두 번째, 제분요에는 <맷돌노래>, <방아노래> 그리고 <연자매노래> 등등이 있다.

세 번째, 어업요에는 <해녀노래>, <배 젓는 노래>, <맷목 젓는 노래>, <새 맷목 띄우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고기 낚는 노래> 그리고 <갈치 낚는 노래> 등등이 있다.

네 번째, 벌채요에는 <나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나무 깎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래> 그리고 <꿀 베는 노래> 등등이 있다.

다섯 번째, 관망요에는 <양태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 그리고 <모자노래> 등등이 있다.

여섯 번째, 잡역요에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 <토불미노래>, <디딤불미노래>, <뚝뚝불미노래>, <짚 두드리는 노래>, <흙 이기는 노래>, <집터 다지는 노래>, <새벽질하는 노래>, <흙굿 밟는 노래>, <산 태질노래>, <베틀노래> 그리고 <물레노래> 등등이 있다.

이렇듯 제주 민요의 노동요의 종류는 많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노동요 중 <맷돌노래>, <방아노래> 그리고 <해녀노래>가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민요이다.

<맷돌노래>는 방아에서 찢어진 보리쌀을 맷돌질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맷돌노래>와 <방아노래>는 특징이 거의 비슷해서 <맷돌·방아노래>로 하나로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에는 쌀이 매우 많았고, 다양한 잡곡들을 먹기 위해 찢고 삶고 갈아 먹기 위해서는 맷돌과 방아가 반드시 필요 했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제주 민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노래가 특출난 까닭은 맷돌·방아질이 노래하기에 알맞다는 점에도 있다. 곧 이일은 집안에서 한둘이 조용하게 장시간 무아지경에서 치르는 작업이므로 이 작업을 함으로써 잊었던 자기로 돌아올 수 있다.³⁾

<해녀노래> 또한 유명한 민요이다. 제주도에는 많은 해녀들이 밀집되어 있고 하는 작업들 또한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노래>는 유일하게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전승되고, 여성 어업 노동요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제주 민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비노동요 중에서는 대표적인 민요로 <오돌또기>와 <산천초목>이 있다. 이 두 가지 민요는 제주 민요 중 창민요의 대표 2가지이다.

<오돌또기>는 제주도민 남녀노소 모두 다 어느 정도 부를 줄 아는 노래이다. 완벽하게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구성된 가락을 조금씩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제주도에서 유명하고 사랑 받는 민요이다.

<산천초목>은 제주도의 창민요의 하나로서 희귀하게 전승된다. 한본토의 산타령계 민요의 특징을 잘

1)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민속원, 2002, 13쪽

2) 위의 책, 91쪽

3) 위의 책, 151쪽

게 띄고 있는 민요로 보인다.⁴⁾

《참고문헌》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민속원, 20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제주민요의 형식적 특징

인문학부 20181031 김혜빈

제주 민요의 형식적 특징은 크게 '은유적 표현', '관용적 표현', '해학적 표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 은유적 표현에서는 제주 민요의 각 편이 문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유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데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가시적이며 불필요한 어구의 나열이나 실용어의 남용에서도 벗어났다. 일상적 은유 표현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인식의 지

4)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민속원, 2002, 225

평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은유란 삶의 은유를 뜻한다. 은유 속에 삶의 방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물로 보는 것, 동물로 보는 것, 식물로 보는 것, 음식물로 보는 것 등이 있는데, 이렇듯 은유의 방식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만지는 사물로 비유된다. 쉽게 몸과 와 닿으며 한결 절실하게 긴장체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주 민요의 속성이며 강점기도 하다.

두 번째 관용적 표현에서는 숫자나 사물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 수식구에 의한 관용적 표현, 일정한 어법에서 생기는 관용적 표현 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곤 한다. 장황한 묘사나 설명보다 한 마디의 관용적 표현이 더 큰 효과를 지닐 때가 허다하다. 관용적 표현을 통해 민요가 일상적 언어와 구분되는 문학작품일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며, 독자적인 언어 세계를 형성해 현실의 제시가 아니라 현실을 허구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작품일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해학적 표현에서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인 것이 공존하는 우리 민요를 나타내곤 한다. 작품의 구조나 내용은 비애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나타내는 문체는 골계스럽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골계미는 열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려 할 때 나타나지만 열등한 상황에서의 정면 대결이 아닌 우회적 접근으로 이면공격을 취하기 때문에 주체는 상처를 받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골계로 비애를 차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 민요에서는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웅색함에서 벗어나 대립하되 서로 겨루지 않는 화해관인 ‘희극적 화해’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 이면에 신랄한 비판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화해에 이를 수 있다. 제주 민요의 미적 체험도 이 면에서 문학적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 민요의 문학성은 이러한 표현 특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구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 통일성을 보장하게 하여 민요가 문학성을 얻는 데 표현 특질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양영자, 「제주도 민요 논문: 제주 민요의 표현 특질」, 제주학회, 2002

제주민요 맺돌노래

국어국문학과 20161059 엄지호

제주 민요의 특징은, 노동요 즉 일노래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노동 기능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농사 관행에 따른 노래로서 <노동요>, 수확된 곡식을 뿔거나 삶으면서 부르는 <제분요>, 고기잡이나 해녀물질에 따르는 <어업요>, 나무나 풀 등을 베어서 쪼개고 나를 때 부르는 <벌채요>, 갯, 망태, 모자, 탕건, 망건 등을 걸으면서 부르는 <관망요>등과 잡일을 하며 부르는 <잡역요>가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요종의 수 면에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사설의 내용도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제분요> 중에서 맺돌작업과 방아작업을 치르면서 부르는 <맺돌, 방아노래>는 여성들

의 심정이 구구절절 배어 있어서 개인의 정서 표출이 강하고, 여성들의 눈으로 본 제주도민의 삶과 애환, 제주도의 사회와 역사가 나타난다.⁵⁾

곡식을 빻거나 썰고 가루로 만드는 일과 더불어 불려지는 노래들을 통칭해서 <제분요>라 한다. 제주에서는 가루를 만들기 위해 맷돌을 돌려야 하며 빻는 일은 방아를 이용한다. 또한 보리와 같은 주곡은 연자매를 사용하여 찢고 썰어서 맷돌로 다시 쪼갠 후 밥을 해 먹는다. 이러한 일들은 부녀자들이 가내에서 행하는 주업인 것이다. 낮에는 밭이나 바다에서 노동하고 저녁부터는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이 작업을 했던 것이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노래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어 노동의 힘이 적게 들고, 장시간 동안 적은 인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정서를 풀어헤칠 수 있어서 문학성이 뛰어난 사실이 전개되며 그 노래의 수도 엄청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 맷돌노래는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맷돌 돌리는 기능과 더불어 불려지는 노래이다. 창자들은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맷돌노래>와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방아노래>를 가창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상의 구연에서는 가루를 갈거나 빻는 유사기능에 의해 불려지고 또한 작업의 성격도 비슷하므로 대부분의 여성 창자들은 두 작업 중 어느 작업을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설을 노래한다. 곧 가락은 다르나 유사한 기능과 동일한 사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두 기능에 따른 사설 구분은 불가능하다. 김영돈은 「제주도 민요연구 (상)」에서 맷돌노래 가사의 내용을 추출하여 맷돌노래의 기능성, 방아 노래의 기능성, 자립, 근면, 생활고 그리고 팔자 한탄의 노래 등 10가지로 정리했다.

가창방식은 방아노래 역시 마찬가지인데, 홀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더듬고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혼자 부르기 (독창), 또 한 사람이 우선 선창을 하면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후렴하기 (선후창), 서로 번갈아 부르는 방식으로 (교창) 앞소리의 사설을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혹은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기가 있다.

이어이여 이어도하라
이어ㄹ레 ㄹ들베굴양⁶⁾
조녁이나 붉은제하라⁷⁾

우리어멍 날날적인
전생긔게 날난어멍
맞제긔언 구월에나난
구애꽃도 내벗을삼양
우는것인 누물이로고나

밤이오랑 밤이가는 손님
어느ㅁ실 누겐줄 알리
올래배꺾디⁸⁾ 청버드남의⁹⁾

5)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p. 195

6) 부지런히 갈아서

7) 밥을 때 하라

8) 길가의

9) 버드나무에

이름생명이나 씨고가소¹⁰⁾

이어이여 이어도하라

(이하 생략)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로 인한 정, 시집살이의 고통, 부노의 은혜를, 특히 모성애를 노래한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편 대부분이 삶의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서민문학의 일반적인 경향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에 의한 좌절은 좌절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극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고난에 의한 좌절의 양상은 그 고난이 얼마나 완강하고, 또한 역설적으로 극복의 의지가 얼마나 완강한가를 비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려지기도 한다. 그 결과 그것은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공동체적인 작품으로 구축되면서 제주인의 서정, 혹은 삶의 모습이 보편성을 띠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타난다. 이는 바로 민요가 지역사회의 산물이며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¹¹⁾

《참고문헌》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제주민요 오돌또기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오돌또기는 전국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날 제주도의 대표적인 唱民謠(창민요)다. 따라서 의당 論議(논의)할만한 대상인데도 아직까지 작업이 이뤄진 바가 거의 없다. 먼저 악보와 사설을 보면 〈오돌또기〉의 은은한 가락은 大自然(대자연)의 푸르름이 우아한 饗宴(향연)을 이루는 濟州(제주)의 개성 짙은 美感(미감)과 어울리어 香味(감미)로운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이 오돌또기의 구성진 가락은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즐겨 부를 줄 알만큼 널리 번져졌다. 이 가락에 심취하면서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濟州(제주)의 山川美(산천미)와 異國(이국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든다. 오돌또기는 그 사실보다도 그 싱그럽고 뛰어난 선율이 생명이다.

10) 성명이나 씨고가소

11) 좌혜경, 위의 책 p. 210-215

♩ = 66

(실음: 장2도 높음)

오돌또기

(메)

오 돌 - 또오-오오 기 저 어기춘 향- 나 - 오-나-다-

달-도 오- 밝 - - - 고- 내 가머 리로 가아 리까나 아

(반)

둥그대- 당 실- 둥그대- 당 실- 여 어도당 실 연 자-버-리고

달 - 도 밝 - - - 고- 내 가머 리로 갈 - 까나

그 다음 오돌또기 사설을 보면

후렴)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앞으로] 갈까나

1.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2. 할ᄇᆞᆫ산[한라산] 중허리에 실안개 든 송 만 송[든 듯 만 듯]/
서귀포 앞바당[앞바다]엔 해녀가 든 송 만 송
3. 제주야 할ᄇᆞᆫ산엔 고사리 밧[밭]도 좋구요/
산지포 저 돛배[돛배]의 뱃고동 소리도 좋구나
4. 산엔 가며는 목동이 놀고요/
바당[바다]에 가며는 잠수덜[잠수들]이 논단다
5. 성산포 일출봉 해 뜨는 구경도 좋고 좋고/
제주시 사라봉 해 지는 구경도 좋구나
6. 돌아진 뱅뱅 물든 섬에 물질허멍[물질하며] 살아도/
예루화 님을 만나 둥그대 당실 좋구나
7. 서방님 보고서 예리화 인사를 못 해서/
치메 곳[치마 끝] 입에 물고 입만 방긋한단다
8. 청사초롱에 불 밝혀 들고/ 춘향의 방으로 감돌아든다
9. 가면 가고요 말면 말았지/
집세기[짚신을] 신고서 아이구 시집을 갈소냐
10. 오라고 헌 디는 야밤에 가고요/
동네야 술집엔 얼화 대낮에 가는구나
11. 나 홀로 앉아서 탕건을 할랴 허니/
님 생각 그리워서 눈물만 글랑글랑

이처럼 오늘날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오돌또기에는 ‘한라산허리’, ‘서귀포해녀’, ‘성산일출’, 등 제주도의 景勝(경승)[경치]이 드러난다. 이른바 濟州十景(제주십경)과 관련되는 이런 景勝(경승)이 나열되는 것은 생긴 지 수십 년밖에 안 되었을 濟州十景歌(제주십경가)라는 노래에도 드러나듯이 오돌또기 사설의 본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오돌또기 사설의 본바탕을 지닌 것은 첫머리 사설뿐인 듯하고 두 번째부터는 근래에 이룩된 사설인 듯하다. 그런대로 이 4편의 사설은 오늘날 전승되는 오돌또기사설로 보아서는 口演頻度(구연빈도)가 높은 固定的(고정적)인 색채가 짙으므로 그 典型(전형)에 가까우리라 推定(추정)된다. 여기 오돌또기의 語義(어의)는 과연 무엇일까. 사뭇 오랫동안 왈가왈부하면서도 <아리랑>의 뜻이 무엇 인지, 그 뜻이 있는지 없는지 마저 밝혀지지 않았듯이 오돌또기의 뜻도 모호하다. 오돌또기>를 林春香(박춘향)이라는 여인으로 보는 전설이 있기는 하다. 곧 金福寫(김복수)라는 제주 사람이 安南國에 妻 林春香을 두고 제주도로 귀향한 다음, 애뜻이 오돌또기를 부르며 妻子(처자)를 그렸다는 전설인데 오돌또기는 이 리 하여 제주도의 애뜻하고 구성진 민요로 전해진다. 이는 오돌또기민요 사설 속에 美人(미인)의 상징으로서 春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이루어진 전설로 보이는데 이 민요의 은은한 가락과도 그 분위기가 어울리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전설은 예전에 좀 流布(유포)되었을 뿐,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오돌또기는 오돌또기라는 어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유스런 旋律(선율), 리듬의 다양한 변화, 균형 잡힌 형식 등으로 봐서 제주도 민요 가운데서 가장 세련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경향이다.

《참고문헌》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회, 1987

(네이버 지식백과) 이성훈, 「오돌또기」,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제주 민요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16 김원목

민요는 민족의 삶과 역사의 토대 위에서 형성, 전개된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문학유산이다. 민족의 삶과 역사가 시작되었던 먼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요는 그 삶과 역사 속에서 민족의 숨결과 열을 갖가지 모습으로 맺고 풀고 그리고 엮어 왔다. 우리 민요가 갖는 소중함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민요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계승하고, 연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의 발견과 확립을 위한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제주 민요 역시 제주도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제주 민중의 삶의 애환, 민족의식 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제주 민요의 모습은 곧 제주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 민요의 특색은 제주도의 특색인 것이다. 민요는 기능성, 지역성, 서민성을 짙게 띠기 때문에 민요 사설 몇 편을 보면 제주도의 온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어렵히 드러난다. 따라서 여러 통계숫자를 살피고 제주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고 파악하는 길보다 제주도가 과연 어떤 곳인지, 제주도민이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민요 사설을 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민요에는 특히 노동요의 종류가 많고, 제주도에서만 전해지는 노동요 역시 종류가 많으며 한 가

지 노동요에도 사설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주 민요의 경우에는 유별스레 여성노동요의 사설이 풍부하며, 일부 사설은 문학적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 민요는 그 사설 내용을 보아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제주 민요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제주 민요는 우리나라의 민요의 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민요는 제주 방언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언어를 연구해볼만한 언어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소실된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세계 도처의 민요 사설에는 이 불가사의한 지혜와 저력이 어떤 모습으로든 담겨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저력은 서민들의 나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다. 일상적 삶의 활력일 뿐더러, 제주를 제주답게 한국을 한국답게 이끌어오는 힘의 원천이다. 앞으로 국내외 다른 지역의 민요 사설과 활발한 대비 고찰이 이루어져야 제주 민요 사설의 유다른 빛깔이 농어민의 싱그러운 삶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제주 민요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요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역사민속학회, 『민요와 민중의 삶』,宇石, 1994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집, 1998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2조 추사 김정희

김정희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31107 김수동

김정희는 1786년 6월 3일 충청도 예산 용궁리, 오늘날 추사고택이라고 부르는 경주 김씨 월성위(月城尉) 집안의 향저(鄕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훗날 병조판서를 지내는 김노경, 어머니는 김제군수를 지낸 유준주의 딸인 기계 유씨(杞溪俞氏)이다. 김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일찍 글을 깨우치는 영재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정희가 여섯 살 때 쓴 입춘첩을 월성위궁 대문에 붙이자 당시 북학파의 거두인 박제가가 길을 가던 중 글씨를 보곤“이 아이는 앞으로 학문과 예술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하니 제가 가르쳐서 성취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자로 들인다. 이후 체제공 또한 입춘첩을 접하고서 그가 글씨로 이름날 것을 예언하였다.

김정희는 여덟 살이 될 무렵 월성위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자 집안의 결정으로 백부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1797년 그의 나이 열두 살 때 양아버지 김노영이 타계한 것을 시작으로 둘째 큰아버지 김노성, 할머니, 할아버지등이 차례로 세상을 등진다. 스무 살에는 어머니 기계 유씨와 아내였던 한산 이씨가 타계하고, 신유박해에 연루되었던 스승 박제가 역시 유배에서 풀려나는 대로 사망한다. 친 아버지 김노경이 과거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가족이라곤 친부와 두 동생 밖에 없던 김정희의 집대는 가정적으로 매우 불우했다 할 수 있다.

1809년 11월 9일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한 김정희는 생원이 되었다. 그리고 동지부사로 선임되어 연경에 가게 된 김노경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경에 간다. 이후 6개월 동안 청나라에 머물면서 청나라 학자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 등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고증학을 배우게 된다. 이후 1819년 4월 25일, 34세의 추사는 과거시험 대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관직 생활을 보면 권지세자시강원, 예조참의를 거쳐 세자시강원설서로 효명세자를 보필하였고, 예문관검열을 거쳐 삼사의 언관을 두루 역임한 뒤 승문원검교, 1823년 규장각대교, 암행어사 등까지 거쳤다. 한편, 1830년 그 아버지 김노경은 윤상도(尹尙度)의 옥(獄)에 관련된 혐의로 고금도(古今島)로 귀양을 가게 된다. 1836년 김정희는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에 오른다. 1840년 55세가 되던 해 6월에 아버지와 같이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3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연경에 다시 가는 감격을 채 누리기 전에 이번엔 그 자신이 윤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

유배는 1840년부터 1848년까지 이어졌고 그 와중에도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하는 등 학문적, 문학 적 소양 다듬는데 힘썼다. 현종 말년 귀양이 풀려 돌아왔으나 1851년 진종 조례론의 배후 발설자로 함경도 복청에 다시 유배된다. 이후 1852년 8월 13일에서야 복청 유배에서 풀려났고 이후 김정희에겐 다시는 그런 곤욕의 풍파가 없었다. 이후로 과지초당에서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김정희는 생의 마지막 4년을 조용히 마무리하며 지낸다.

《참고문헌》

학고재, 『알기 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김정희』, 학고재, 2006

추사 김정희의 업적

인문학부 20181113 추연식

추사는 청조 고증학의 일인자이다. 그는 청조 경학과 고증학, 금석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청에서 귀국한 이후, 우리나라의 비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청나라 고증학자들이 중국의 옛 비문을 연구한 것처럼 옛 금석문을 연구해 우리의 고증학을 정착시켜 발전시키려 한 것이다. 추사는 이 과정에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해내게 된다.

추사는 두 번의 답사 과정에서 순수비 측면에 두 글귀를 새겨놓았다.

이것은 신라 진흥대왕 순수비이다. 병자년 7월 김정희, 김경연이 오다.

정축년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이 함께 와서 남아 있는 글자 68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추사는 순수비에 나오는 ‘남천(南川)’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문헌 자료를 조사하면서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이 비의 연도를 정확히 측정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의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추사에 의해 새로 발견되었다. 이 북한산 순수비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황초령비와 『삼국사기』의 기록과 비교 검토하여 훗날 장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완당이 남긴 대표적인 글,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이다.

추사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추사의 글씨, 추사체가 있다. 추사체는 대단히 개성적인 글씨이다. 그가 예술적 개성으로 삼은 것이 바로 괴이함이었는데, 이는 평범한 아름다움 혹은 교과서적인 미적 감각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당혹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런 괴이함이 오히려 높은 경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추사의 글씨를 한 단어로 「추사체」라고 일컫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하여 어떤 글씨

를 추사체라고 정의를 내리기 매우 힘들다. 추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선계비불(禪偈非佛)」, 「판전(板殿)」 같은 작품을 예로 들었을 때, 셋 모두 서체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성이 강한 글씨라는 점뿐이다.

추사는 서예의 전통적인 순미(純美) 혹은 우미(優美)를 추구하지 않았다. 순수하고 암전한 글씨 대신에 괴(怪)를 추구했다. 그는 추미(醜美),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다. 그런 괴이함이 추사체의 본질이자 매력인 것이다.

《참고문헌》

유홍준, 『김정희: 알기 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학고재, 2006

유홍준, 『완당평전1: 일세를 품미하는 완당바람』, 학고재, 2002

명호

국어국문학과 20171037 박은선

추사의 명호는 343개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조와 용도 및 의미가 각각 다르다. 추사가 작품이나 글을 쓸 때 마다 그에 어울리는 명호와 후미운을 골라 쓰거나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343개의 명호 중 추사(秋史), 완당(阮堂), 시암(詩庵), 예당(禮堂), 과노(果老), 농장인(農丈人),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등이 대표적이다.

명호 추사(秋史)는 중국 문인들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주로 예를 갖추는 글 또는 공식적인 글에 쓰였다. 추사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추사김정희, 추사정희, 추사거사김정희, 여수동곡인 추사처럼 다른 명호나 단어들과 합쳐져 사용되기도 했다. 추사(秋史)의 추는 ‘가을’, ‘추상(秋霜)같다’, ‘오행 중 금(金)을 의미한다’ 등의 뜻이 있다. 사는 ‘서화가’, ‘사관’, ‘문장가’ 등의 뜻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을 서리같이 엄정한 금석학자이자 서화가란 의미이다.

추사는 중국에서 만난 옹방강과 완원, 두 스승을 흠모하며 섬기기 위해 많은 명호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완당(阮堂)이다. 완당(阮堂)의 완에는 ‘나라이름’, ‘성씨 완(阮)’ 등의 의미가 있다. 추사가 존경하던 스승 완원의 성씨를 따온 것이다. 당은 ‘집’, ‘방’ 등을 의미한다. 즉 완당(阮堂)은 스승 완원을 존경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집을 이른 명호이다.

명호 시암(詩庵)은 추사가 중국에서 귀국 후 스승 옹방강과 주로 서신이나 글을 통해 교류했는데, 스승 옹방강이 추사에게 헌판 글씨인 시암을 써서 보내면서 이것을 명호로 쓰기 시작했다. 추사는 명호 시암을 통해 옹방강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선비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암을 시적인 정취가 풍기는 서재로 풀이 할 수 있다.

예당(禮堂)은 예를 익히는 것은 물론 경전을 연마한다는 의미에 빗대어 자신의 집을 이른 명호이다. 하지만 예당은 추사 자신을 상징하며 의인화되어 사용되었다. 추사는 중국에서 스승 옹방강을 만난 뒤

경전 연구에 매우 심취했고 중국에서 귀국한 후 웅방강과 주고받는 편지나 글에서 자신의 명호인 예당을 소개했다. 웅방강에게 추사 사진이 현재 임하고 있는 학문적 입장을 나태내기 위해 쓴 완당(阮堂)과 같은 구조와 이치를 가진다.

추사는 두 번째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후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약 4년간 주로 과천(果川)에 거주하며 말년을 보냈다. 이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과천과 관련된 명호를 많이 쓰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려고 했다. 이에 과노(果老)는 나이 든 자신을 단아하게 이르는 명호이다. 몸을 늙었고 마음은 공허한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과노를 ‘과천 노인’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준호, 『추사, 명호처럼 살다』, 아미재, 2012

학문과 고증학

국어국문학과 20161092 전소민

청조의 고증학을 수용한 북한은 앞서 살핀 대로 영조대 후반, 즉 18세기 후반에 시작되는데, 그 초기 주창자는 홍대용과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었으며, 북학이 본궤도에 오른 시기는 박제가(朴齊家, 1750~1815), 이덕무, 유득공, 남공철, 이서구(李書九, 1754~1825) 등이 활약한 때이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바로 이 다음 세대로 북학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청조의 고증학계에서 금석학이나 교감학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시기였다. 이 영향에 따라 추사의 학문에서도 고증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고, 경학의 방면에서도 고증학의 영향을 충분히 간취할 수 있으며 고증학에 대한 추사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추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증학의 대가는 누구보다 웅방강과 완원을 들 수 있다. 당시 연경학계의 태두인 웅방강은 추사를 만나서 그의 경학에 대해 감탄하는 한편,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비장(秘藏)의 서화첩답(書畫帖榻)을 제시하고 [경의고보정](經義考補正), [제경부기](諸經附記), [소재필기](蘇齋筆記) 등의 저술을 보여주어 추사를 탄복하게 하였다. 또 추사는 당대의 석학이었던 완원도 방문하였는데, 이미 완원은 유득공, 박제기와 만난 일이 있었기에 그를 더욱 환대하였다. 이 자리에서 완원의 금석진서(金石珍書)를 완상(玩賞)하고, 그가 지은 [경적찬고](警笛饌庫), [십삼경주소교감기](十三經注疏校勘記), [연경실집](堦經室集)의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추사는 이정원(李鼎元), 오승량(吳承梁), 주학년(朱鶴年) 등의 명사와도 사귀었다. 비록 연행은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단시간에 청의 거유(巨儒)들과 만나면서 그 학문의 핵심을 구득(求得)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였다.¹²⁾

완원도 추사의 경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추사는 귀국 후에도 완원과 교류를 지속하여 그가 편찬한 [황청경해](皇淸經解) 1,400권 500책을 귀국 후 20년이 지나서 완원의 아들인 상생(常生)을 통해 기증받기도 하였다. 추사의 문집에 보이는 경학과 서예(書藝)에 관한 글 중 완원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

12) 崔完秀, 「秋史墨緣記」, 『潤訟文華』 48,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95

이 많은 것을 보면 완원이 추사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완원이 제시한 실사구시의 입장을 추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추사는 완원에게서 실사구시라는 고증학의 핵심적인 방법을 수용하되, 그 내용은 옹방강이 제시한 한송불분의 입장, 곧 의리와 훈고를 조화, 절충 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추사의 이와 같은 입장은 단순히 옹방강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청조의 고증학계가 경사의 보익(補益)을 통한 경세 이념의 제시라는 현실 참여의 정신에서 점차 벗어나 순수학문적 성격을 띠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고증학의 공소성을 넘어서 경세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추사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사는 청의 고증학자 중에서 옹방강과 완원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옹방강을 매우 존경하였지만 그의 학설을 그대로 따른 것만은 아니었으며, 옹방강이나 완원 이외에도 청대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청대학술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완당집]에 수록된 약 20여 편의 고, 설, 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경학을 논한 것을 보면 당시 추사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비록 이 논설들이 대부분 짧고 단편적인 것이어서 추사 경학의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완원, 대진, 능정감등의 저술이 잘못 삽입된 점도 있지만 추사가 경학의 여러 분야에서 청조 학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경학에서 그가 이론 성과는 일관된 논지로 정리되지 못한 반면에, 금석거증학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예 일치의 서예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참고문헌》

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김정희, 『완당시선』, 솔, 1997

유배지와 유배생활

국어국문학과 20171045 변지현

위리안치의 제주도 귀양살이를 하게 된 추사는 3천 리 멀고 먼 제주도로 떠나게 된다. 그는 당시 삼남대로의 출발지 이자 영원한 벗, 초의(1786~1866) 선사가 수도 생활을 하던 대흥사가 지척인 이진을 출발해 제주도 화북(별도)포에 도착한다. 제주도에 도착하였을 때 추사가 쓴 편지를 보면 해 뜰 무렵에 출발하여 석양에 당도한 것은 61일 동안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뱃길은 순탄했던 모양이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난 후 추사의 일정을 편지에 근거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9월 28일 저녁 : 제주도 화북에 도착, 화북 민가에서 유숙. / 9월 29일 : 제주성에서 아전 고한익의 집에 머무름. / 9월 30일 : 큰바람이 불어 대정으로 출발하지 못함. / 10월 1일 : 대정으로 출발. 추사의 마지막 도착지 대정. 큰 고요함이라는 뜻의 마을 이름이 가슴에 와닿는 곳에 추사는 도착하였다. 고요함은 편안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유배지 대정은 고요할지는 모르나 편안한 곳은 결코 아니었다. 대정의 다른 이름인 ‘모슬포’가 ‘못 살(사람이 살지 못할)포’에서 나옴은 물론 지척민빈한 탓인지 인심도 사납다는 게 정평인 곳이었다. 대정에서 추사의 1차 적거지는 대정읍성 안동네 송계순의 집이었다. 송계순의 집은 제주도 전통의 두거리 집임을 알 수 있다. 추사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으로 보아 1차 적거지는 위리안치를 위한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종죄인에게만 내려지는 위리 혹은 가극안치는 가시 울타리로 쓰였던 탕자나무의 서식지가 전라도 연안과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로 취해졌던 형벌이다. 추사는 1차 적거지에서 2년을 머물다가 제주도 전통의 이사 철인 신구간에 대정현 강도순의 집으로 적거지를 옮긴다. 1차 때와는 다르게 위리안치는 계속되지 않았고 사랑채에 해당하는 ‘손청거리’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네거리 집이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미루어 격리 조치가 완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추사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어서 방문객들이 많았다. 이들 방문객들은 추사의 적거지를 수성초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정작 추사는 자신의 적거지를 귀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수성초당 보다 굴중옥이라 칭했다. 그는 굴의 의미를 “우뚝 선 지조와 향기로운 덕”이라 상찬하면서 적거지 명칭을 지은 것이었다. 추사의 가장 오래된 적거지인 이곳 말고도 추사는 유배가 끝날 무렵 식수의 불편 때문에 대정현 창천리로 적거지를 한 번 더 옮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로써 추사는 이 큰 고요함 속에서 9년을 머물게 된다. 55세의 추사에게 9년의 고통스러운 제주도 유배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은 추사의 제주 유배 생활 동안에 얻은 가장 큰 소득을 추사체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유배로 인해 제주도의 가난한 못 백성들과 9년여를 같이 지내면서 사대주의 엘리트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지도 모른다. 민규호(1836~1878)에 따르면 추사는 “제주에 거처한 9년 동안 조용히 책을 읽고, 사람

들을 가르치니, 인문이 크게 열렸다”고 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자 추사가 제주도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내려갔다는 말이다.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이 오랑캐처럼 우둔하고 무지하다고 개탄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무지를 타파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스승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추사는 더욱더 제주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했다. 추사는 온화한 스승이었고 그를 찾는 사람들은 많았다. 배우러 오는 이들의 내왕이 많다는 것은 사도가 그만큼 존엄하다는 뜻과도 같았고 그가 제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은 덕과 학문이 모범이 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던 이유도 그가 가르친 제자의 덕이 컸다. 그의 여러 제자 중 한 명인 이상적(1804~1865)은 역관이였다. 그는 중국에서 여러 책을 구해 제주도로 보내주었고 추사는 이에 감동하여 <세한도>라는 작품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세한도의 발문을 보면 추사의 독서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추사체 또한 더 확고히 틀과 형식을 갖추어 갔다. 새로운 조형적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제주도의 풍경이 한몫하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추사는 시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았다. 예술 작품을 정신성의 상징적 형식으로, 시를 대표적 양식으로 인식한 그에게 예술정신이란 곧 시 정신이다. 하지만 글씨를 잘 쓴다는 명성에 시문의 대가임이 가려졌고 이를 아쉽게 여긴 그의 제자 남병길(1804~1865)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을 즈음 그의 시를 모은 <<담연재시고>>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적막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추사는 잦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실제 추사는 기침과 혈담으로 고생했고 눈병, 다릿병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곤또한 심해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환갑에 가까운 몸으로 제주도에서 적응하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 추사는 1848년 12월 6일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유배지 제주도를 떠난다. 그 나이 63세 8년 3개월의 제주도 귀양살이가 비로소 끝난 것이다. 그는 석방 소식을 접하니 7일 이내에 그간 묵은 온갖 잡다한 일을 다 처리했을 만큼 서둘러 살림을 정리했다. 대정을 뒤로하고 그가 도착한 곳은 화북이었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 발을 내디뎠던 포구다. 그때는 필히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순항을 비는 제문을 지어 해신사에 올린 후 제단을 내려와 또다시 남해신께 제문을 올리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해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드디어 추사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주도를 떠나게 된다. 실로 8년 3개월 만에 그의 제주도 유배 생활이 막을 내린 것이다.

<<참고문헌>>

양진건,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31107 김수동

근대 문학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의 근대성이란 문학 속 개인적 자아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중세 문학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동서양 문인들이 가졌던 위상을 비교해 보면 알기 쉬운 문제이다.

중세 서유럽 문화권의 문예에 대한 작자의 신분은 대부분 왕실에서 근무하는 계관시인들과 어릿광대들로, 체계화된 관료 선발 제도에 의해 선별된 사회엘리트 계층인 동아시아의 문인들과 비교하면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문학 사상에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문학이 문학 자체, 고유의 미학을 추구하는 시대적 전환을 맞이한다.

조선 중기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문예>조를 따로 두어 문예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문예를 시문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허균은 『한정록』의 각각 16, 17편에서 성정을 중심으로 송과 당의 한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리학적 문학관에서 이루어진 일방통행적인 소통을 극복하는 의의를 가진 해석을 내놓는다. 이것들은 실용성과 사실성을 추구했던 실학적 풍토에서 성취된 것들로 이들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19세기에 이르러서 그 계보에 있는 것은 김정희였다.

김정희가 활동했던 19세기 중엽은 예술 추구의 성향이 강했다. 김정희는 그 같은 성향을 지닌 문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대에 그와 같은 계열의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정희는 시를 논할 때 성령론(性靈論)을 주장했다. 성령론은 시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때 이 마음을 성령이라고 칭했다. 이것은 마음이 곧 성정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기존의 성리학적 예술론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정희의 성령론에 대한 주장을 장지완, 최성환, 정지윤 등의 위향시인들이 개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논거로 가져가 사용하는데, 김정희는 이를 반발하여 개성을 따르더라도 격조를 지켜야하며 수준 높은 교양과 학식을 요구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 ‘문자향’과 ‘서권기’란 용어들이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것은 예술로서 도를 추구하는 예도(藝道)라는 의미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김정희의 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학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근대적 문학성의 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의 논리를 부정하는 위 이론은 무척이나 대담한 종류의 것이다. 이는 김정희 본인의 예술에 대한 외곶 같은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능과 뛰어난 학문적 성취들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참고문헌》

유홍준, 『완당평전1·2』, 학고재, 2002

김성룡, 「조선 후기 문예 미학의 문학 사상사적 의의」, 호서대학교, 2008

3조 제주도 민담

I. 서론

민담은 신화, 전설과 함께 설화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민담은 용어 그대로 민간에게 전승되어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 민담이란 용어는 훨씬 제한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민담은 넓은 의미로 설화의 일부분이나 좁은 의미로는 설화 장르의 하위 범주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민담의 이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II. 민담에 대해

1. 민담의 개념

민담은 민중들의 이야기,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뜻한다. 특정한 장소, 시대 인물이 지적되지 않고, 필연성이 전제되지도 않는, 흥미 본위의 꾸며낸 이야기이다.

2. 민담의 기능

1) 민담은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화자나 이야기를 듣는 청자가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2) 민담은 수용자에게 즐거움과 함께 삶의 교훈을 제공해 준다. 민담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교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민담 중에는 교훈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나 교훈,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민담을 통해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3) 민담은 수용자들에게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게 해 주고, 보상적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민담 속에는 현실과 다르게 어떠한 고난이나 힘든 상황도 극복되고, 선과 악이 대립할 때 반드시 선이 승리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결에서는 무조건 피지배자가 승리한다. 민담의 수용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통해 현실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족감을 맛볼 수 있다.

4) 민담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준다. 민담은 구연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다. 민담은 대면을 통한 전달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의식의 교감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깊게 해준다.

3. 민담의 유형

1) 동물담

동물 유래담은 동물의 생김새, 습성, 명칭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본격 동물담은 동물에게 모든 인간적 기질을 부여하여 의인화한다.
동물우화는 동물에게 일정한 유형을 부여하고, 인간 행동을 동물 행동으로 바꾸어
그 속에 도덕적, 교훈적 내용을 담는다.

2) 본격담

현실담은 현실계에 현실적 인물이 등장하여 지혜와 용기에 의해 사건을 처리한다.
공상담은 초현실계에 초자연적 인물이 등장, 초자연력을 사용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로 이끈다.

3) 소화

허장담은 엉터리 이야기다. (현실에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들)
모방담은 정직자의 성공을 흉내 내다가 실패하고 마는 부정직자의 이야기다.
치우담은 저능아, 바보와 같은 종류들이 포함 되고, 그 밖에 무식한 사람,
실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된다.

III. 결론

이처럼 민담은 그 전승과정에서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반영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아는 것이라면 이러한 점에서도 민담을 소
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고유 콘텐츠로써 경제적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찬 외, 『한국의 민속 문학과 전통문화』, 삼영사, 2004
김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김동욱 외, 『한국 민속학』, 새문사, 1990
오세경, 『한 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석일사, 1998

제주도의 대표 민담 <설문대 할망> 자체 해석

- 왜 신화가 아닌 민담으로 볼 수 있을까

국어국문학과 20171020 김진경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여신이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큰 서사는 설문대 할망

이 바다의 흙을 삽으로 퍼서 섬을 만들고, 밋밋함을 없애기 위해 가운데 산을 만든 것이 한라산이며, 치마에 구멍이 나 사이사이 빠진 흙들이 모인 것이 오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창조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그 신성성이 사라지고 희화화된 모습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기에 설문대 할망은 신화가 아닌 제주도의 지역 전설이나 민담으로 향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신화가 아닌 민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인 즉슨 설문대 할망의 내용 자체가 자연 지명 유래담이 많고 그 증거물이 제주도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전의 형식을 통해 설문대 할망의 존재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들과 다른 거녀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고,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대정읍 앞바다에 있는 섬인 마라도에 디더서 구좌읍 우도섬을 빨랫돌을 삼아 빨래를 했을 정도였다..¹³⁾ 물론 이러한 여신의 존재는 신성성을 지닌다. 하지만 미담으로만 기억 되어야 할 신화라고 보기엔 부족한, 희화화된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다.

설문대 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망은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龍淵)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흥리에 있는 흥리물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버렸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신적인 존재의 숭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고 미담이라고 할 수 없는 여신의 죽음은 한 없이 자만에 빠져 일어난 일이기에 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문대 할망은 신화적인 형식 보다는 제주도 창제에 얽힌 구전성 강한 민담의 형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소윤, 「한국 거인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컨셉디자인 연구 : '제주도 설문대 할망 전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0

설문대 할망의 특성과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07 권연송

<설문대 할망>은 '거인' 이라고 불리는 아주 몸집이 크며 힘이 장사인 여인이다. '거녀'이야기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있다.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제주도 성산을 일대에서는 '세명뒤 할망', 표선면 일대에서는 '마고할망'이라고도 한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설문대 할망'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설문대 할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장한철(1744~?)의 『표해록(漂海錄)』(1771)이다.¹⁵⁾

13) 김순이 / 제주도신화전설1 / 2001

14) 현용준 / 제주도 전설 濟州道傳説 / 서문당, 1996

15) 조현설, 「마고할미, 개양할미, 설문대할망-설문대할망 전승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

해외의 민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민담 속에서도 ‘거인’이라는 것은 창제시기 조물주의 역할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거인 <설문대 할망>은 제주 우주의 기원이자 제주의 모태다. 즉 제주를 낳은 어머니이다. <설문대 할망>을 통한 제주 탄생과정은, 할망이 한강에서 토사를 집어 바다에 뿌리니 그것이 제주도가 되고, 할망의 똥은 제주의 오름이 된다. 이 민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지형형성’이다. 거인이라는 신체적 특징은 지형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타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할망의 배출을 통한 창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할망은 제주로 대비되는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물은 제주도의 할망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위대한 여신’(Great Mother)이라는 원형인물이 등장한다. ‘위대한 여신’은 여성적인 측면인 생명의 탄생과 죽음, 모든 유기체가 조화롭도록 관장하는 어머니이자 자연이다.

민담 속 제주 곳곳에는 할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녀의 베개였던 한라산과, 빨래를 할 때는 성산 일출봉에 발을 디었다. 이렇게 제주의 모든 장소에 제주인들은 특별한 의미부여를 한 것이고, 이것은 그에 기대어 살았던 제주인의 희망이자 꿈인 것이다. ‘여성’ 할망의 모습은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둔다.¹⁶⁾ 남성인물 위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즉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인물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다.

앞으로 <설문대 할망>의 제대로 된 이야기의 확립, 가치 창조와 함께 우리나라, 제주도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각종 축제와 결합하여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제신적 특성과 변모양상-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 38권, 2014.

설문대할망 행위의 의미파악

국어국문학과 20161075 이정민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여신이다. 한라산, 오름, 섬, 기암 등 실질적인 제주 지형을 형성해 낸 천지개벽신화의 거신이며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다.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할망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와 지형형성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야기 할 것은 할망의 지형 형성 담이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하위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할망이 흙을 옮겨 산을 만들었다. ②우연히 치맛자락에서 떨어진 흙이 오름이 되었다. ③오줌을 싼더니 흙이 패여 섬이 되었다. ①번은 설문대할망의 의도적인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고 ②는 거인이었던 설문대할망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우연히 생긴 부가물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할망의 발 뽀고 잠자기 행위이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가 섬에 닿았다는 부분은 할망의 키가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무인도 섬

연구 41권, 2009, p.141

16)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61권, 2016, p.517

섬 에는 할망이 기지개를 커다 발을 잘못 뻗어 생긴 듯 구멍이 나란히 두 개나 뚫려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할망의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행위이다. 할망은 한라산보다도 더 큰 키를 갖고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발을 들고 시공간을 넘어설 수 있었고 이 모습을 통해 신적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할망의 빨래하기 이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섬에 발을 딛고 넓은 바다에서 빨래를 했다. 제주의 서쪽이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설문대할망이 서쪽에서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설문대할망이 빨래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상상력으로 설명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빨래를 하는 행위와 비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 또한 할망이 빨랫감을 섬에 대고 발로 문지르고 밟고 두드리며 빨래하는 것이 천둥소리와 바다의 움직임 등을 동반한다는 것을 모두 연관 지어 생각하면 기상변화와 빨래하는 여신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배가 고픈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하루방과 함께 하문을 이용하여 사냥, 고기잡이를 한 것이다. 성기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 인데 특이한 것은 설문대하루방이 등장하는 유일한 행위 담 이며 사냥, 고기잡이 행위의 주도적 인물이 설문대하루방 이라는 점이다. 설문대할망이 섭지코지에 앉아있었고 하루방이 자신의 성기로 고기를 섭지코지로 몰아갔다. 고기가 몰려와 할망의 하문으로 들어가자 하루방은 하문을 잠그고 고기를 낚아 올려 육지에 퍼 놓으라 했고 그 둘은 많은 고기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섭지코지를 일명 ‘설문대코지’ 라고도 한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연육교’농기 이다. 설문대할망은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기로 제주민과 약속했지만 옷감이 부족해 옷이 완성되지 않았고 할망의 다리놓기 또한 중단되었다. 이 유형담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보면 할망이 제주민들 에게 요구했던 명주옷은 신화적 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천, 한림, 모슬포의 곳에 다리놓기 흔적이 남은 이유는 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지역민의 의지였다. 옷을 완성시키지 못한 이유였던 옷감 1통의 부족분으로 인해 다리놓기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설문대할망이 더 이상 신앙의 힘이 될 수 없었다는 신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다리 놓기의 실패가 이후 할망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는 말에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은 할망이 키 자랑 을 하다 죽은 것이다.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에 들어갔다 물에 빠져죽었다. 할망은 자신의 키보다 작은 산정호수에서 죽고 말았고 이것은 연육교 농기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유형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설문대할망을 제주의 수호신으로 바라보고 싶어 한다.

《참고문헌》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제주도에서는 왜 ‘할망’이 많이 쓰이는가?

국어국문학과 20171031 박상선

제주도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할망’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온다. 또한 제주도의 이야기에 나오는 ‘할망’은 대체로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존경받는 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의 이야기에 왜 ‘할망’이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할망’을 좋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경과 정착 생활, 출산 등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여성적이고 모성애적인 특성인데 이것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무속신화에서는 여성 신들의 출생담이 많다. 여성 신들은 정착 생활, 농경, 자녀의 양육, 잉태와 출산 등 모성적이고 어머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설문대 할망’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문대 할망’에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배뇨인데 내용을 보면 배뇨의 양이 많고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할망’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모성적인 여성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할망’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 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제주도의 이야기에 ‘할망’이 많이 등장하는 다른 이유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이야기 때문 일 것이다. ‘설문대 할망’에서는 ‘할망’이 제주도를 만든 신적인 존재로 나오는데 ‘할망’은 제주도 자체 섬과 한라산, 오름, 강 등 지형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와 있는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제주도의 창조신이 ‘할망’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에서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는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특성상 자신들만의 창조신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한 그들만의 모성적이고 어머니적인 특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제주도민들에게 ‘할망’은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의 창조신이 ‘할망’인 것과 결합하여 ‘할망’이라는 인물이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게 된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현수, 「제주도 《설문대 할망》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4조 제주도 신화

제주도 본풀이의 특성

국어국문학과 20171039 박정훈

제주도에는 ‘본풀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다. 이것은 심방¹⁷⁾이 굿을 할 때 제상 앞에서 신을 향하여 노래조로 부르는 것이다. 이 설화들은 대개 신의 출생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비를 거쳐, 신으로서의 직능을 맡아 좌정¹⁸⁾할 때까지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설화들은 숭배 대상인 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라고 관념하여 굿에서 노래 불러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하나의 분류개념으로 파악하여 ‘본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본풀이’라는 말은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본’은 ‘본(本)·본래(本來)·근본(根本)’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來歷)’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의 명사 전성으로 ‘해설(解說)·해명(解明)·해석(解釋)’ 등의 뜻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말뜻은 ‘신의 본원과 내력을 해석·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화라 할 수 있는 이 본풀이는 대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반 본풀이, 둘째는 당(堂)¹⁹⁾ 본풀이, 셋째는 조상 본풀이다. 일반 본풀이란 일반적인 자연사상(自然事象)이나 인문사상(人文事象)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다. 당 본풀이란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當神)의 내력담이며, 조상 본풀이란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다.

본풀이는 주인공의 출생·성장·고행·결연(結緣) 등 파란 많은 생활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職能)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간다. 그 이야기들은 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

17) 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

18) 자리 잡아 앉음.

19) ‘본향신(本鄉神)’을 모시는 곳. 신당의 줄임말.

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짊어 가면서, 그 과정의 생활을 선악의 갈등으로 고조시켜 선(善)의 승리로 풀어 나간다. 그중에는 양반에 대한 반항이나 풍자가 있고, 계모의 비행을 징계하는 것도 있고, 효행이나 정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도덕적 규율이나 관습·제의 등의 원인·합리성·정당성을 삽입시켜 설명한다. 이렇게 하여 이야기가 다 끝나면 ‘무슨 본풀이를 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하고 간곡한 축원²⁰⁾으로 넘어간다.

신화를 노래하고, 이어서 축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축원하려는 사항을 유리하게 지배·처리한 신의 과거 행적을 신화를 통하여 명확히 증거를 댈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그 추천을 아니 들어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에서 본풀이는 축원 사항의 성취라는 공리적(功利的) 기능이 주된 것임을 알게 되며, 아울러 자연·인문사상에 대한 지식과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 기준을 부여해 주고, 동시에 심미적(審美的) 쾌락을 주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참고문헌》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제주도 열두본풀이 개요

국어국문학과 20161078 이해원

본풀이의 경우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다. 구연을 하는 심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같은 심방이 같은 본풀이를 구연하더라도 구연 당시의 시간, 장소, 분위기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같은 본풀이라 하더라도 심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양창보 심방이 구연하는 본풀이 개요를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글은 구연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초감제 혼돈 상태의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고 갑작스럽게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만들어졌다. 하늘에 별이 생기니 만물이 생겼고, 삼황오제가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쳤고, 죽어 저승으로 가는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천지왕본풀이 수명장자라는 인물이 가난을 핑계로 불효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저승에서 슬피우는 그의 어머니에게 듣게 된 염라대왕은 대노하여 천지왕을 땅으로 내려보낸다. 천지왕은 총명부인을 만나 수명장자의 못된 점을 알게 되어 그의 집을 멸문시킨 후 하늘로 올라간다. 천지왕의 아이들을 낳은 총명부인은 아이들을 위로 올려보내고, 각각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가진다.

맹진국할마님본풀이 인도의 맹진국에서 스스로 탄생한 맹진국할마님은 옥황상제로부터 생불할망이라는 직책을 받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생불할망이라는 동이용궁따님과 만나게 되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들은 옥황상제의 호출로 올라가 꽃 가꾸기 경연을 한다. 이에 맹진국할마님이 승리하지만 분함을 느낀 동이용궁따님은 염라대왕을 찾아가게 되고, 낙태와 질병을 뿌리며 맹진국할마님을 방해하라는 명을 듣고, 행하게 된다.

마누라본풀이 맹진국할마님이 홍진국데별상마누라의 행차 길 앞을 지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때 맹진국할마님은 홍진국데별상마누라에게 자신이 점지한 아이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차 길을 방해했다고만 생각해 크게 화를 낸다. 이에 맹진국할마님이 그의 부인에게 포태를 주고 만삭에 이르게 해 부인을 걱정한 홍진국데별상마누라가 맹진국할마님을 찾아 석고대죄를 하게 된다.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가는 백일불공 끝에 힘들게 얻은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는 벼슬을 얻게 되어

20)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함.

집을 떠나있어야 했는데, 이때 그녀를 가둔 채 길을 나선다. 하지만 황금산 도단땅 절의 황주접선성이 그녀의 미모를 보기 위해 술수를 부려 문을 열었고, 그녀의 머리를 세 번 쓰다듬고 간다. 이에 노가단 풍아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부모에게서 버려졌다. 중 역시 부인을 둘 수 없기에 그녀를 거절했고 그녀는 삼형제를 홀로 길렀다. 삼형제는 주변의 놀림에서도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나 주변에 시샘에 급제를 취소당했으며 노가단풍아가 역시 삼형제의 공부를 포기시키기 위해 주변인들로부터 감금당했다. 그러나 삼형제가 굶을 열어 풀려났다.

이공본풀이 사례도령과 원강남이는 결혼을 해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때 맹진국할마님이 사례도령을 꽃감관으로 데려가려하고, 임신으로 인해 버거웠던 원강남이는 제인장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사례도령만이 저승으로 올라간다. 후에 그들의 아이인 할락궁이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고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올라갔지만 원강남이는 죽게 된다 할락궁이는 사례도령으로부터 웃음꽃, 싸움하는 꽃, 수레악심멜망꽃, 환생꽃을 받아 제인장제의 집을 몰락시키고 원강남이를 환생시켜 서천꽃밭에서 자신은 꽃감관을, 원강남이에게는 저승유모할망을 맡게 한다.

삼공본풀이 거지였던 강이영석이서복과 홍문수천구에궁전은 결혼을 했다. 셋째딸인 가문장아기를 낳자 부자가 된다. 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인 것 같냐고 묻자 가문장아기는 '내 배꼽 밑의 금 덕으로 산다.'고 했고, 이에 대노한 아버지는 그녀를 쫓아낸다. 가문장아기는 마통이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구덩이에서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된다. 그녀는 부모를 찾기 위해 각 고을의 장님을 만나 잔치를 열고, 부모는 잔치를 연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듣고 눈을 뜨게 된다.

세경본풀이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고 첫 눈에 반한다. 그를 따라 가고 싶어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따라간다. 3년 간 한 방에서 지내면서도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도령에게 서수왕따님애기와 결혼하라는 전보가 오자, 자청비는 사실을 고했고 둘은 사랑하게 되어 재회를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문도령이 오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자청비는 남자 종인 정수남이의 꼬임에 넘어가 집을 나선다. 그 꼬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해하고, 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을 찾아가 말썽을 피우던 부엉이를 잡아주고 부성감은 자신의 딸을 내어주며 사위로 삼는다. 부성감 딸에게 돌아온다 약조를 하고 길을 나서 정수남이를 살려내지만 기이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다시 버림을 받는다. 문도령이 서수왕따님애기와 혼인을 위한 비단옷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문도령을 만나지만 바늘로 그의 손을 찔러 문도령은 돌아간다. 하지만 자청비 때문에 문도령이 상사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와 결혼하게 된다. 마침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참전해 큰 공을 세운다. 지상으로 내려와 자청비는 부성감의 딸과 결혼하게 된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문도령에게 부성감의 딸과 보름을 살고 나머지 보름은 자신과 살자고 청한다. 허락한 문도령은 부성감의 딸과 지내는데 그만 약속한 날을 잊고 뒤늦게 찾아간다. 자청비는 이별을 고하고 지상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

체사본풀이 버물왕의 세 아들을 묻은 연못에서 과양생이 각시는 실수로 연못에서 탄 세 송이 꽃의 구슬을 삼켜 세쌍둥이를 낳게 된다. 그 아이들은 장원급제를 하지만 한 날 한시에 죽게된다. 이에 원님은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부르라 명한다. 강림은 염라대왕을 만나 약속을 받아내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결국 버물왕의 세 아들을 되살려낸다. 강림이의 재주가 탐난 염라대왕과 짐추판관은 각각 그의 혼과 몸을 취한다. 강림은 죽은 몸이 되어 저승차가 된다. 그를 도와주겠다는 까마귀가 실수로 적패지를 떨어트려 나이 순서대로 죽는다는 이승의 규칙이 사라졌다.

문전본풀이 가난한 남선비와 예산부인이 있었다. 남선비는 돈을 벌기 위해 오동나라로 떠나지만 노일저데귀일의 딸의 꼬임에 빠져 돈을 모두 뺏겼고, 장님이 되어 머슴처럼 살게 된다. 3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온 예산부인은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일저데귀일의 딸은 예산부인을 친절히 대하고 빨래를 가자고 숙여 연화못에 빠트려 죽인다. 그녀는 장님인 남선비에게

예산부인인척하며 고향에 가자고 하고, 그의 일곱 아들을 만난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그녀가 예산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시한다. 노일저데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죽일 계략으로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하고, 점쟁이로 변장해 이는 아들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남선비는 칼을 갈게 된다. 막내 아들은 자신이 형들을 죽일테니 자신만 죽이라며 형들을 산으로 도망치게 하고 돼지의 간을 가져간다. 차마 이를 먹지 못한 채 숨긴 노일저데귀일의 딸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인 녹디성이는 달려들고, 그녀는 목을 매달아 죽는다. 죄책감에 도망치던 남선비 역시 죽고 아들들은 서천꽃밭에서 생불꽃을 구해 어머니를 살렸다. 아들들은 집안의 요소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칠성본풀이 자식을 갖고 싶어 칠성제를 지내던 장설룡 송설룡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칠성제 후 눈이 멀게 되고 나라에는 변란이 일어나 장씨와 송씨를 모두 죽이라는 명을 듣게 된다. 그러나 맹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다시 칠성제를 열어 딸을 얻게 된다. 관직을 얻은 장설룡 부부를 따라가던 그의 딸은 중을 만나 하반신이 뱀으로 변하게 된다. 사라진 딸을 힘들게 찾았지만 변한 모습을 보고 딸을 무쇠함에 넣어 바다에 버린다. 그러나 무쇠함은 함덕에 당도해 해녀들에게 발견되지만 일곱 마리의 뱀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시 버려진다. 이에 크게 아픈 해녀들은 굿을 하고, 떠나게 된다. 장설룡의 딸은 제주 전역에서 모시는 안칠성과 밧칠성이 되었다.

지장본풀이 남산과 예산 부부가 지장아기씨를 얻게 되는데 네 살부터 줄초상이 생긴다. 사고무친이 된 지장은 외삼촌의 수양딸로 보내지고 학대 속에서 옥황과 부영새의 보살핌 속에 성장한다. 지장은 서수왕 문수의 아들과 결혼하고 시댁에서 귀여움을 받는다. 그러나 열 일곱부터 시부모, 남편, 자식이 다 죽게 되고 시누이들의 미움을 받아 내쳐진다. 지장은 새남굿을 하게 된다. 지장은 죽는 순간 새의 몸으로 변하고 사람들 몸에 접신해 재앙과 질병을 불러오는 신이 되었다.

맹감본풀이 소사만이는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탕진해 그의 부인은 어렵게 돈을 모아 장사 밀천을 준다. 그러나 그 돈을 거의 다 쓰고 사냥총을 하나 산다. 사냥에 나선 그는 자신을 부르는 해골을 발견하고 남몰래 삭망제를 지냈다. 그 뒤 삶이 안정되어 천하거부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해골은 소사만이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날 방법을 알려준다. 소사만이는 그대로 하고 저승사자들은 그를 살려둔 채 저승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노한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혼내자 그들은 소사만이의 수명을 30년이 아닌 3000세로 바꿔버린다. 그 후 다시 확인해 달라 간청한다. 저승사자들이 수명을 바꿨다는 것을 모르는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들이 정확했다며 맹감의 지위를 준다.

제주도 본풀이는 구비 신화로, 말로 전승되는 세계가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기록보다 구전이 과거의 삶에 대해 온전히 전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글보다 더 중요한 실증자료로 부각되었다. 특히 다른 구전들은 단편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제주의 본풀이는 무당들의 노랫가락으로 풍부하고 조상들의 기억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들이 겪었던 자연재해 등 과학적인 면 역시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 결국 제주의 본풀이는 역사와 민족, 과학,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의 원천에 대해 이해한다면 현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3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32권, 2012

탐라국 건국신화

인문학부 20181088 이혁재

제주도의 삼성신화(三姓神話)는 고, 양, 부 삼신인이 각각 군(君), 신(臣), 민(民)의 서차를 가지며 활숨씨가 가장 뛰어난 고씨가 군, 다음은 양씨, 부씨였다고 한다. 이것이 각 성의 존귀와 비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각각 제사를 주재하는 주권자, 전사를 담당하는 지배자,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이들은 건국신화의 주인공으로서의 기능, 주권신, 전신, 풍요신으로 숭앙되었을 것이다.

한반도 건국신화의 대부분은 천상에서의 하강으로 나타나는 반면, 탐라신화는 지상에서의 용출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가 화산의 폭발로 생긴 섬이기에 그 성격을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야 신화에서 수로가 강림한 장소가 분성산이고, 낮은 언덕인 구지봉이 제의의 장소인 것처럼 제주의 주봉인 백록담은 3신인의 탄생처로서의 위치라면, 모흥혈(삼성혈)은 영신의례를 행하던 제의의 장소라 할 수 있다. 3신인의 지중용출(地中聳出)은 탄생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곡신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곡신은 주검을 거친 다음에 부활하며, 부활은 생산의 풍요를 상징한다. 탐라국 건국시조는 지중의 매몰과 지상의 용출을 보임으로써 조상신, 생산신으로 숭앙되었을 것이다.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여신 도래신화이다. 이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약마희(躍馬戲)는 현대어로 떼몰이놀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작은 짚 배에 제물을 실어 떼배에 올려놓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바다로 나서 가장 앞선 떼배의 주인이 영등신을 전승한 셈이 되고 그 해 풍어를 얻는다는 과거 북제주군의 영등굿 배방송으로 추정된다. 제주 건국신화는 3신인이 용출한 후 벽랑국에서 온 3여신과 혼인해 탐라국을 건설했다는 내용이다. 매년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한 해의 풍요를 비는 행사를 거행하였을 법한데, 이 행사가 나중에 경조행사(약마희) 민속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고 있다. 영등굿 속의 배방선 놀이, 탐라국 건국신화의 3여신 도래, 약마희에서의 신을 즐겁게 하는 민속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므로 이런 유추가 가능할 수 있겠다.

삼성신화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로, 세종연간에 준비되어 단종 2년(1454년)에 간행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삼여신은 동쪽 바닷가를 통해 들어왔고, 그들의 출자처는 일본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 연간(1450년)에 지어진 영주지에서는 동쪽 바닷가에 들어오고, 출자처는 벽랑국으로 되어 있다. 근래에는 동쪽 바닷가로 표현되던 것이 온평리(서귀포)의 옛 지명인 열운리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곳에는 삼여신의 표착에 관한 많은 전설이 남아 있다. 《온평리지》에서는 삼여신이 온평리 황노알에 표착하게 되자 그들을 맞이하러 온 고양부 삼신인과 만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못에서 혼인을 하여, 그곳을 혼인지라 부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제주 삼성신화에서는 3여신이 오곡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제주의 서사무가 중 괴내깃당본풀이 또는 이의 발전적 형태인 송당본풀이는 삼성신화의 근원적 신화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사냥을 하여 생업을 꾸려나가다가, 자녀들이 많아지자 여성신에 의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주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문화의 결합은 고대국가의 건설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2013

제주학과 제주문화

제주의 곳곳에는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제주학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중 들여다 볼 것은 바로 제주어이다. 언어는 지역의 문화와 밀접해 있기에 제주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자연스레 제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어 ‘삼촌’의 경우 단순히 ‘아버지의 형제’가 아닌 길에서 만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남녀 구분 없고 친척 여부를 떠나 모두를 ‘삼촌’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생활 공동체인 제주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어에는 ‘콧, 녹대, 가달, 서월’²¹⁾ 등 쉽지 않은 단어들로 인해 간삽(乾澁)²²⁾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쉽게 말해 ‘대관령’, ‘제주해협’과 같이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언어 이동을 막아 옛 어휘를 보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주도는 방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이러한 점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제주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들의 일상음식은 무엇일까. 바로 보리이다. 산. 양. 해촌 세 종류 부락의 일반 가족의 주식물은 보리, 조, 피 등이고 부식물은 된장, 채소, 콩잎. 해촌에서는 자리돔 이다. 일상식은 양촌이 제일 푸짐하고 산촌이 가장 초라하다. 그러나 해촌에서는 백미(白米)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식사 방법도 육지와 달라서 가족이 밥상에 장유(長幼) 구별 없이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먹고 가끔은 손가락을 쓸 때도 있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상을 차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점들에서 제주 사람들의 소박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제주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건축 문화를 간략히 말하자면 제주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기에 전통건축은 자연스레 독특한 공간과 형태를 형성해왔다. 그렇기에 지역성과 문화적 가치가 뚜렷하다. 제주도의 주생활 중 가장 큰 특징은 안거리, 밖거리로 구분되는 공간분화에 따른 생활경제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립적인 배치관계를 나타내면서도 개방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온 것이 특징이다. 제주의 건축문화는 변하려 하고,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광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제주의 고유문화 형성에 맞춘 건축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영봉,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이야기』, 각, 2015

이즈미 세이치, 『제주도』, 여름언덕, 2014

김태일,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5조 현기영 <순이삼촌>

21) 표준어로 차례대로 톱, 굴레, 재갈, 서울

22) ‘건삽하다(말라서 윤택이 없고 껄껄하다)’의 어근이다.

현기영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41115 김태영

연도	내용
1941	1월 16일 제주도에서 태어남
1957	제주 오현 고등학교 입학
19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
1967	4월 서울 광신중·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취임
1975	동아일보 신춘문에 단편 「아버지」 당선 「꽃샘바람」, 「초혼굿」, 「실어증」 등을 발표
1976	「동냥꾼」과 「소드방놀이」를 한국문학과 현대문학에 발표
1978	제주 4.3 사건을 다룬 「순이삼촌」을 발표
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를 잇따라 발표
1981	「길」 작품 발표 「변방에서 우짖는 새」 발표
1983	「어떤 생애」 발표
1984	「아스팔트」 발표
1986	3월 고척 고등학교 교사 취임
1989	민족 문학 작가회의 상임 이사, 「젊은 대지를 위하여」 청사 출판사에서 발표 5월 제주 4.3연구소 소장
1992	2월 민족 문학 작가회의 소설분과 위원장을 맡음
1994	「마지막 태우리」 창작과 비평사에서 발표
1996	2월 민족 문학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1998	3월 사단법인 민족 문학 작가회의 부이사장
1999	「지상에 숟가락 하나」를 실천 문학사에서 발표
2000	3월 사단법인 민족 문학 작가회의 자문위원
2001	3월 민족 문학 작가회의 이사장
2003	2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참고문헌》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순이 삼촌 줄거리

국어국문학과 20171018 김지윤

주인공인 ‘나’는 이틀간의 휴가를 간신히 얻어 음력 선달 열여드레인 할아버지 제삿날에 때를 맞춰 8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집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이 삼촌이 생각이 나 묻자 모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삼촌은 일 년 가까이 서울에 있는 ‘나’의 집에 올라와 밥을 해주며 고생하다가 불과 두 달 전에 내려왔는데, 큰아버지에 의하면 며칠 전에 집을 나가 밭에서 약을 먹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큰아버지는 삼촌이 죽은 이유는 정신병 때문 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판단이 옳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순이 삼촌이 ‘나’의 집에 와있던 지난 일 년은 모두가 불편스럽고 원만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순이 삼촌이 신경쇠약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환청증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경 장애의 원인을 차곡차곡 살펴 나가면, 1948년의 제주도 4·3사건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여 년 전, 밖에서 연설 들으러 나오라는 고향 소리가 들렸다. 보통 때와 달리 군인들이 수십 명 퍼져 다니면서 재촉하였다. 군인들 가족과 순경 가족, 이어서 공무원 가족이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마을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다. 동요하는 마을 사람들을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고,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돼지 몰듯 밖으로 데려가고 나면,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어갔다. 작전 명령에 의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제주도 부락민들이 5·10선거 때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선거를 보이콧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밤에는 폭도에 쫓기고 낮에는 군경에 쫓겨 갈팡질팡하다 결국은 할 수 없이 굴속으로 도피를 했던 것이다. 순이 삼촌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 때문에 도피자들 틈에 끼어 있다가 우리 할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오누이 자식을 데리러 내려 온 그때 그만 화를 당한 것이다. 군경 측의 무리한 작전과 이념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한길을 피해 모두 교실로 몰려 들어가 불안한 밤을 새웠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다. 삼촌은 기절을 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 학살 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순이 삼촌은 그 후 경찰에 대한 심한 기피증이 생겼고, 메주콩 사건으로 결벽증까지 생겼으며, 나중에는 환청 증세도 겹치게 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순이 삼촌만큼 그날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없었다. 평생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순이 삼촌은 자식이 둘이나 묻힌 그 밭에서 사람의 뼈와 탄피 등을 골라내며 30년을 과부로 살아오다가 그날의 일을 환청으로 듣게 되고, 마침내 그 살육의 현장에서 독약을 먹고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얻게 된 그때당시의 피해를 ‘순이 삼촌’이라는 인물을 이용하여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순이 삼촌의 서술상의 특징

국어국문학과 20171104 하민아

순이 삼촌은 제주 4·3사건의 비극과 이로 인한 ‘순이 삼촌’이라는 한 개인의 황폐한 삶이 주제이다. 이 소설은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삼촌’, ‘당숙’등 영어권 문화에는 결여되어 있는 가족 관계 호칭들이 나타나있고, 특히 제주도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제주도 방언의 문화 특정어들도 많이 쓰여 있는 작품이다²³⁾.

이 작품의 화자 ‘나’는 의식적으로 고향을 멀리하고 지내다가 큰아버지의 재촉으로 할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춰 8년 만에 내키지 않는 귀향을 감행한다. 이것으로 보아 그에게 고향은 평화와 안식의 공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과 “죽은 마을”이라는 표현이 그의 고향에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한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음울한 구름”과 “검고 딱딱해 보이는” 돌담은 “어린 시절의 그 음울한 겨울철”을 상기시키며 죽음으로 뒤덮인 고향의 공간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²⁴⁾ 순이 삼촌의 서사적 전개과정은 곧, ‘나’의 고향이 왜 ‘죽은 마을’이 되었는가를 해명하는 과정에 다름없다. 이는 화자인 ‘나’, 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위 인용문의 언술체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물론 의문과 해명의 서사적 연쇄에 의해 진행되는 서사적 도정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의 조우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다가야만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삼촌에게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생기게 된 근원에는 마을의 소각과 집단학살이 벌어지던 당시에 입은 심신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학살의 고통스런 기억은 그의 골병 든 육체와 정신적 외상에 깊이 각인되어 생생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이 순이 삼촌이라는 촌 아낙네를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진상에 접근해 들어가려 하는지가 자명해진다. ‘순이(順例) 삼촌’이라는 기표 자체가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순이’라는 친숙하고 흔해 빠진 이름이 선량하고 순한 삶을 사는 평범한 일반 인간을 표상하는 기표로 선택되어진 것이고,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어른을 성구별 없이 부르는 제주풍습에서 따온 ‘삼촌’이라는 호칭은 제주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기표이다. 이 두 기표가 결합된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순이 삼촌은 제주라는 고립적 공간에 서사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제주라는 공간의 특수성에만 갇히지 않고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비극적 핵심을 관통해 들어가는 데에 성공한다.²⁵⁾

《참고문헌》

조숙희·조의연, 「글자번역 형식과 문화 특정어 용례분석: Sun-i samchon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2013

이정석,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한림대학교, 2008

현기영, 『순이삼촌:소설집』, 창작과 비평사, 1979

4.3 사건

국어국문학과 20167003 민성원

개요

제주도 출신의 작가 현기영은 학살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순이삼촌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4·3사건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고발함과 동시에 30여 년 동안이나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공론화 시켰다고 한다

음력 선달 열여드렛날의 그 사건

23) 조숙희, 조의연 『글자번역 형식과 문화 특정어 용례분석: Sun-i samchon을 중심으로』, p.242

24) 현기영, 『순이삼촌:소설집』 (창작과 비평사), 1979, p.34

25) 이정석,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p.535-536

한날한시에 이집 저 집에서 터져 나오던 곡소리. 음력 선달 열 여드렛날. 낮에는 이곳저곳에서 추렴 돼지가 먹구슬나무에 목매달려 죽는 소리에 온 마을이 시끌썩 했고 오백위(位) 가까운 귀신들이 밥 먹으러 강신 하는 한밤중이면 슬픈 곡성이 터졌다.²⁶⁾ 라고 과거 북촌리 사건의 참혹상을 생각하게 해준다.

북촌리 사건 이란

1949년 1월 17일 북촌 마을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무장 군인들은 보복으로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북촌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아 사람들을 학살한다.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려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순이삼촌과 4·3 사건

4·3이 전개되는 동안 여성들은 남성이 없는 가정을 지키며, 남성을 대신해 경찰과 서청의 폭력에 시달리고, 때로는 남성 대신 살해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토벌대나 유격대의 직접적인 죽임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폭력을 당해야 했고, 남자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결혼을 해야 했다. 즉 4·3의 여성 피해자는 희생자이자 가부장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²⁷⁾ 긴장감이 가득한 이 소설의 내용은 실제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군인과 경찰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이다. 순이삼촌을 통해 제주도 피해 여성들로 표현해 4·3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었다.

《참고문헌》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제주4·3연구소, 2005

4·3사건의 진상

인문학부 20181034 민초이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봉,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

26)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55쪽

27)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제주4·3연구소, 2005, 165쪽

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서청 단원들은 '4·3'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진압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1)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2)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3)하루에 수백 명 씩 심리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4)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 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펴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사고 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 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 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하고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을 지키지 않은 야만적 행위이다. 4·3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며 다른 사건과 함께 국가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올바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도 4·3사건 유적지

인문학부 20181116 함상희

소설 <순이삼촌>은 제주도 4.3사건의 참상과 민중들의 수난을 그린 작품이다. 4.3사건은 이념 대립으로 인해 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약 27,71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소설 속에서 '나'의 친척인 순이 삼촌은 4.3사건 당시 학살 현장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학살과 강제수용 등 민중의 수난과 관련된 유적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는 4.3사건 당시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에서 집단 학살당한 주민들을 합장한 묘지이다. 계엄군은 1948년 11월 7일, 이 세 마을에서 초토화작전을 시작했다. 당시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고문과 학살을 일삼았고 무장대가 이에 반발해 1949년 1월 10일 새벽에 의귀국민학교를 습격했다. 하지만 습격 사실을 미리 안 계엄군은 무장대에게 반격을 가했고 화력에 밀린 무장대는 퇴각한다. 이 사건이 학살의 발화점이 되어 학교에 수용 중이던 주민 80여명은 1월 10일과 12일에 근처 밭으로 끌려가 집단 총살당했다.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것이다. 시신들은 수습조차 쉽지 않았다. 방치되어 썩어가던 시신들은 지난 2003년, 80여 구의 유해 중 30여 구가 발굴되어 묘지에 묻힐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상모리 첫알오름 학살 터에서는 총 21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²⁸⁾을 체포했는데 당시 모슬포 경찰

서 관내인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등지에서는 374명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149명은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절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8월 20일에 학살당했고 한림지서에 체포되어 있던 63명 또한 이날 계엄당국에 의해 총살당해 섯알오름 학살 터에서의 희생자는 212명에 달한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후에 유족들이 거두어 공동묘지에 안장하고 묘지의 이름을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墓域)’라고 지었다. 희생자들의 유골이 뒤섞여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한뜻으로 제사를 모시기로 한 것이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애기무덤은 북촌학살사건의 무대이자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된 유적이다. 1948년 12월 18일, 계엄군은 북촌 주민들 1800명 가운데 수백 명을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옴팡밭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주민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 없이 진행된 학살이었다.

《참고문헌》

임유진, 『제주역사기행보고서 - 제주에서 떠올린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전문잡지 민족21 1월호, 2011

한석지, 함옥금, 「제주 4.3학살과 미국의 책임 - ‘초토화작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4

이성규, 『아주 특별한 문학기행』, 전문잡지 초등우리교육 8월호, 2005

제주4.3연구소, 『제주도 섯알오름 양민대학살의 진상』, 전문잡지 월간말 4월호, 1990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4.3사건유적지”, <http://seogwipo.grandculture.net/?local=seogwipo>, 2018/03/20



28) 1949년에 좌익인사 교화 및 전향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공단체이다.

더 읽어보기

평화의 섬 제주! 제주평화박물관! 平和の島済州! 済州平和博物館!

이곳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군대가 주둔했던 지하요새이다.
 후세들이 전쟁의 현장에 찾아와 과거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반성함으로써 화합의 꽃이 피어나는 평화의 전당이 될 것이다.

ここは太平洋戦争当時、日本軍が駐屯していた地下要塞だ。
 後世の人たちが戦争の現場を訪ね、過去の歴史を正しく学び反省する
 ことによって和合の花が咲く平和の殿堂になるだろう。

전시관 展示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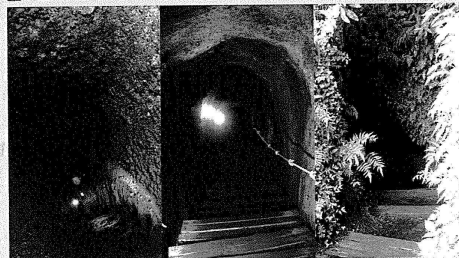


당시 사용했던 유물과 창씨개명 정신대 모집 문건 등 2,000점 전시, 보관되어 있다.
 当時使った遺物と創氏改名、挺身隊募集文件など2,000点展示、保管されています。

평화의 소망 쓰기 平和の願い書き



일본군지하요새 日本軍地下要塞



무궁화사진 전시관 展示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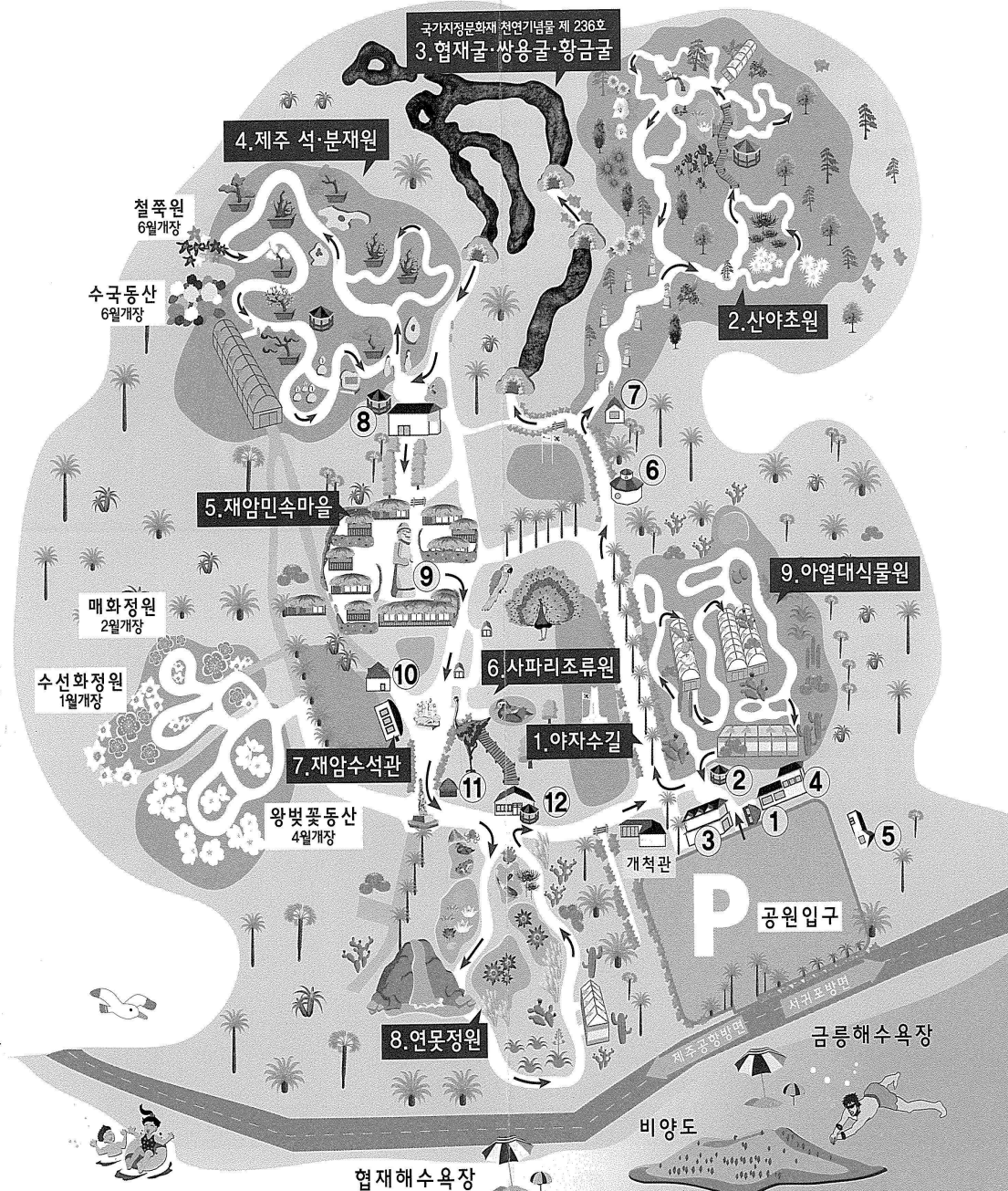


연평도 포격 북한탄피



트로피칼 한림공원

1971



- | | | | | |
|-----------|---------|----------|--------|---|
| ① 매표소 | ④ 아자수식당 | ⑦ 화장실 | ⑩ 사무실 | 연중무휴
봄·여름 8:30 - 19:30
가을·겨울 8:30 - 18:00 |
| ② 표 내시는 곳 | ⑤ 기사휴게소 | ⑧ 다화원휴게소 | ⑪ 화장실 | |
| ③ 쌍용각 휴게소 | ⑥ 공원안내소 | ⑨ 돌하르방식당 | ⑫ 허브카페 | |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경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Seogwipo Kim, Jeong-hui Yubaeji
(Seogwipo Kim, Jeong-hui's Home in Exile)

西歸浦 金正喜 流放址 | 西歸浦 金正喜 流刑址

사적 제487호

Historic Sites 487

国史史跡第487号 | 国史史跡第487号

추사 김정희 선생(1786~1856)은 타고난 천품과 치열한 학예연찬으로 서예사에서 뿐만 아니라 금석고증학, 경학, 불교,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19세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석학이다. 이 곳은 김정희 선생이 55세가 되던 해에 윤상도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먼 유배길에 올라 약 9년간의 유배생활을 했던 곳으로 지난 2007년 10월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었다. 추사 선생은 이곳에 8년 3개월 머물면서 부단한 노력과 성찰로 '법고창신' 하여 '추사체(秋史體)'라는 서예사에 빛나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으며, 그 유명한 '세한도(歲寒圖)'를 그려내었다.

Kim, Jeong-hui (1786~1856), whose pen name was Chusa, was a renowned scholar who represents the 19th century of East Asia.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hrough his ingenious achievements in the research of ancient Korean epigraphs as bibliographical sources of history, as well as Confucianism and the arts through his innate nature and ceaseless pursuit to the fields of arts and academe. This site is the place where Kim, Jeong-hui lived for about 9 years after being sent into exile on the faraway island of Jeju-do as a result of Yun, Sang-do's case at his age 55, and it was appointed as the 487th historic site in Oct. 2007. While staying in this house for 8 years and 3 months, Chusa left the greatest contribution in the history of calligraphy, which is the highly acclaimed "Chusa-che," through constant efforts and contemplation. He also produced the legendary painting, Sehando.

金正喜(号为秋史, 1786~1856)先生通过先天过人的天赋与后天的学术专研, 不仅在书法史同时在金石考古学、经学、佛教、绘画等方面都留下了杰出成就, 是位19世纪东亚代表大师。金正喜先生在55岁之年牵连到尹尚度监狱事件而流芳到此地, 在这里度过了长达将近9年的流放生活, 为此2007年10月被指定为国史史跡第487号。金正喜先生在此地度过的8年3个月中, 通过不断努力和反思“法古创新”创立了“秋史体”, 书画了著名的“岁寒图”。

秋史·金正喜(1786~1856)は、生まれながらの天性で熱心に学芸を深く究め、書芸史のみならず、今昔公証学、経学、仏教、絵画等の様々な分野で優れた業績を残した、19世紀の東アジアを代表する碩学である。この地は金正喜が55歳の時に尹尚度獄事事件に連座して約9年間の長い流刑生活の大部分を送った場所で、2007年10月に国史史跡第487号に指定された。秋史·金正喜はこの地で8年3カ月を過ごしながら絶え間ない努力と省察で「法古創新」し、「秋史体」という、書芸史に輝く最大の業績を残すと共に、かの有名な「歳寒図」を描いた。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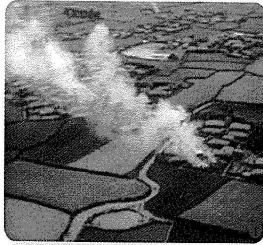
인연의 고향
혼인지 연혁·유래 Honinji Story



- 삼성혈(모흥혈)에서 태어난 탐라의 시조 고·양·부 3신인이 온평리 해안가로 밀려온 함속에서 청의(靑衣)를 입은 15~16세 가량의 벽랑국 세 공주를 맞이하여 각각 배필을 삼아 이들과 혼례를 올렸다는 곳
- 세 공주가 갖고 온 송아지·망아지를 기르고 오곡의 씨앗을 뿌려 태평한 생활을 누렸고, 이로 부터 제주에서는 농경과 목축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함.
- 당시 세 공주가 타고온 목함이 발견된 곳(온평리 해안가)이 '쾌성개'이며, 도착한 해안을 '황루알'이라 하는데, 지금도 '황루알'에는 삼인이 바닷가에서 처음 디딘 발자국이 암반에 아련히 남아 있다.

Honinji is the place that Ko, Yang, Bu, the progenitors of Tamra(now Jeju), who were born in Samsunghyul(moheunghyul), met three princesses of Byukrang-gook who were wearing blue dresses and came from a big wooden box surged from the east coast of jeju and solemnized marriages each other. In Honinji, three progenitors and three princesses took up farming and ranching, raising calves and foals and sowing seeds of five grains. The place that three progenitors found three princesses who were in the big wooden box is called 'Kweseonggae'. And the seashore that three princesses arrived at is called 'Hwangrual'. Still in 'Hwangrual', there are the clear footprints of three princesses that were made when three princesses came to the shore of Jeju for the first time.

제주4·3사건이란?



제주4·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의 정책 실패와 사회 문제 등으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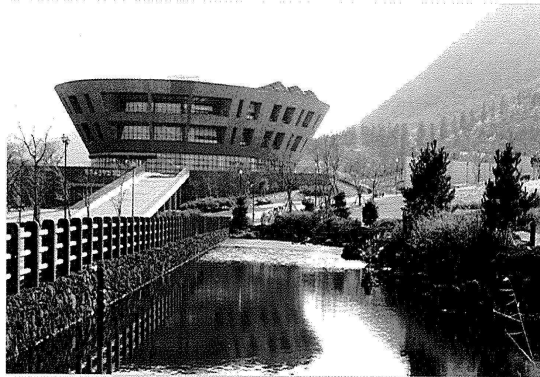
제주도민의 민·관 총파업에 대응해 미군정은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테러와 고문을 일삼았다. 결국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하였고, 5·10 총선거(2007년 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정부는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증파하여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제주도 전역에서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1949년 3월 비로소 선무를 원칙으로 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어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고, 그 해 6월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자와 내륙지방 형무소 재소자 등이 또다시 희생되었다. 결국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무장대와 토

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세계적인 냉전 상황과 한반도 분단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발발·전개된 제주 4·3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으로 귀결되었고, 이후 반세기를 넘어 진상규명운동의 과정을 거쳐 명예회복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해결과정을 밟고 있다.

① 불타는 오라리. 오라리 방화사건의 항공 사진. 이 사건은 나중에 경찰의 방조 아래 우익청년단체원들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밝혀졌다. ② 군정청관 던 일행과 산지향의 LST함정. ③ 형무소에서 온 엽서. 불법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떠난 수형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④ 중산간 지대로 피신한 주민들과 아이들. 사진찍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어린이의 표정 속에서 부표처럼 떠밀릴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민의 비극적 운명을 예견할 수 있다.



4·3평화기념관의 성격

기념·추념공간

4·3평화기념관은 해방공간의 제주도에서 자존을 위해 불의에 맞섰던 제주도민의 저항과 그에 뒤이어 처참한 살육의 역사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공간이다. 4·3기념관은 제주 도민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국가권력의 시각에서 일반주민의 시각으로, 중앙사의 시점에서 지방사의 시점으로,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제주도민의 역사를 기념·추모하는 기념관이다.

아카이브 공간

4·3평화기념관은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엄정한 공간이다. 진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며, 사실은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과 증언, 유가족의 기록, 4·3과 관련된 역사자료 등으로 증명된다. 4·3의 전시는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이 기념관의 전시는 새로이 발굴·수집·연구·평가되는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시대를 사실에 기초하여 반영할 것이다. 4·3기념관은 4·3으로부터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보존·연구하는 국제적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종속으로부터 4·3과 제주도민의 역사를, 황족으로 확장되는 20세기 인류의 학살의 역사와 해방공간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사료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역사교육·교훈의 공간

4·3평화기념관은 누구나 언제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어둠과 처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미래를 사는 후대들에게 고난에 찬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역사교육의 공간이다.

4·3은 제주도민만의 역사가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인류 보편의 과제인 평화추구, 인권회복, 민족화합의 길인 통일을 앞당기고 평화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4·3평화기념관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개방형 공간이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관련 국제회의·심포지엄 등을 개최함으로써 평화·인권·통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공간이다.

한국현대사 전문역사관으로서의 기념관 4·3평화기념관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현대사(해방 전후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념관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나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깊게 하는 전문적 기능을 가진다.

제노사이드·과거사 청산의 역사관으로서의 기념관 학살은 4·3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단면이다. 20세기 들어 인류의 제노사이드는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4·3평화기념관은 제주도민의 학살의 역사와 함께 세계의 주요한 제노사이드를 다룬다.

화해와 상생의 공간으로서의 기념관 4·3평화기념관은 4·3의 진상규명을 통한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공간이다. 4·3평화기념관은 4·3체현세대들에게는 화해의 공간으로, 후세대들에게는 상생의 공간으로서 역사 교훈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의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4·3평화기념관의 전시언어는 제주의 향토성과 문화 정체성에 기초한다. 제주도민의 역사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다면, 4·3의 현장은 제주도라는 지역성과 장소성 그리고 전래의 문화적 전통성과 자연환경의 풍토성 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4·3의 역사는 제주의 향토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